

# 성무

星武



# 우 리 가 알 고 있 던 M-plus

14년 연속 최우수기업신용도  
4년 연속 흑자달성  
17만 회원의 행복  
스마트한 금융파트너  
안정보장 수익창출  
노후대비 미래준비

# 우 리 가 알 아 야 할 M-plus

고객의 마음을 가장 먼저  
회원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36년의 지치지 않는 노력  
36년간 변하지 않는 믿음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 할  
당신의 가장 현명한 동반자





Since 1972



# 創立 48週年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삼양화학공업**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공군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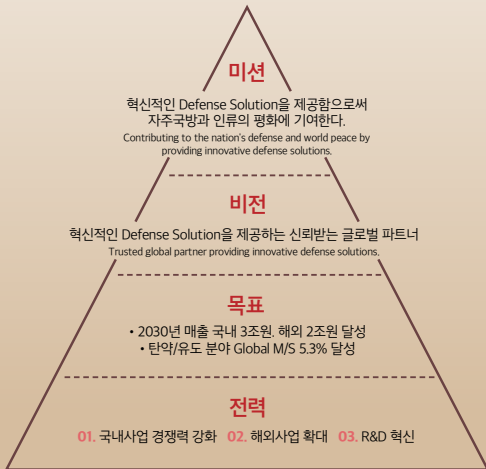
먼저, 1949년 개교 이래 70년 동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 아래 하늘의 사나이인 ‘빨간 마후라’를 배출하여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해 온 공군사관학교의 활약에 커다란 박수를 보냅니다.

(주)한화는 사업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신념으로 1952년 창립하여 지난 50년 이상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산업 육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위험성과 리스크 때문에 남들이 꺼리는 화학과 방산사업에 불꽃 같은 도전정신으로 전 임직원이 ‘함께 멀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주국방 건설에 기여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100대 방산 기업의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회사 혼자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군 그리고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체제에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한화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은 굳건한 안보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국가 방위를 위해 군이 안전하면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하여 전력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방위산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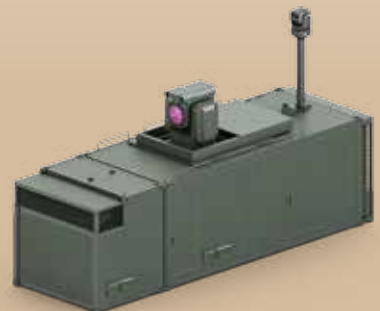
또한 (주)한화는 국가 방위의 핵심전력인 공군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전력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군사관학교 개교 7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미래의 개교 100주년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튼튼한 안보, 강력한 국방’을 선도하는 최고의 사관학교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주)한화 대표이사 옥 경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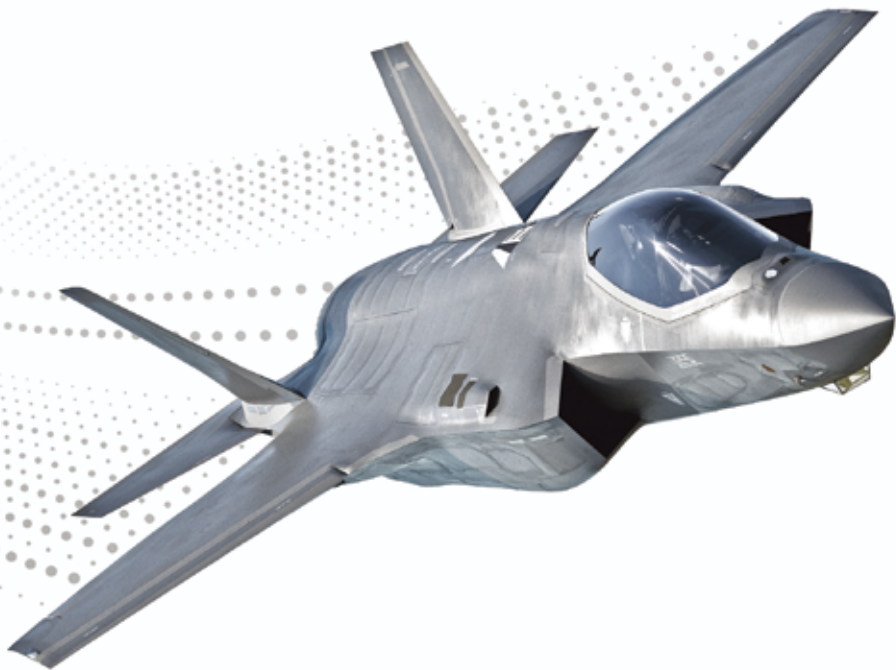


레이저대공무기(BLOCK-I) 체계  
LASER-BASED ANTI-AIRCRAFT WEAPON, BLOCK-I





# F-35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강력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향후 수십 년간 F-35가 제공하는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대한 역사적 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35.com/korea](http://F35.com/korea)에서 확인하십시오.

Lockheed Martin. Your Mission is Ours.®



# CONTENTS

2020. July Vol. 49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앞 최용덕 장군 동상

공군사관학교 교가	8
교훈 & 공사십훈	9
공군 소식	10
공사 소식	16
총동창회 소식	22
이임사	30
취임사	32
축 사	34

## 개교 70주년 특집

공군의 창군과 발전을 이끌었던 공군사관학교의 역사 _ 김기동	40
국가와 민족의 진정한 자유의 날 - 최용덕 장군의 민족정신과 항공사상 _ 이윤식	48

## 회원 기고



대청봉 걸기 _ 김익래	56
그리운 대방동 시절 _ 정윤태	60
바보 영웅 '미스터 삼립' _ 김정호	63
공군 문화 카페 Mr. Bong _ 이봉우	65
타국에서 후배들과의 즐거운 만남 _ 최영순	70
베를린에서 바르샤바까지 자전거 평화대장정 _ 성일환	73
스쿠버 다이빙 예찬 _ 최환중	79
나의 세렌디피티 라이딩 동호회 _ 김광희	84
'돌아온 청춘', 환갑 기념 남미 여행 _ 한경표	88
유익한 항공 여행 정보 _ 은진기	94



만 원이 준 행복 _ 박창용	99
지진 경험 _ 송기준	108
소주 두 잔 _ 이두희	113
부모님의 손 _ 정의길	116
연극 <서교수의 양심>을 보고 _ 이형걸	119
허리디스크 다스리며 100세까지 _ 김국창	123
『매천야록』, 탄식과 절망의 기록 _ 김동기	126
루비 반지 / 웰 에이징 _ 김익래	130
내 남편은 아직도 사관생도 _ 신서영	132

---

## 우정 기고

대한민국 공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가장 높은 힘! _ 안규백	140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보라매들의 산실 _ 임우근	142
청주의 하늘로, 우주로 _ 이범욱	144

---

## 동문 동정

150

---

## 총동창회 알림

정기총회	156
회비 납부 안내	158
평생회비 납부 현황	159
편집 후기 & 기고 안내	161



#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1.우 리\_는 피 끓\_는 배 달 의\_아\_ 들  
2.우 리\_는 하 늘\_을 배 우 는\_젊은 이



높 고 빛 나 는 한 배 님 정 신 이 어\_받 아 서  
높 고 참 다 운 군 대 의 정 신 새 로\_이 룩 해



누 리에 떨\_\_치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를 지\_\_키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 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 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_\_늘 은 우 리 의 일 터 요 싸 움 터



하 늘 에 살 먼\_서 하 늘 에 목 숨 바 친 다

## 교 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 공사십훈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청렴결백(清廉潔白)하라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空  
士  
十  
訓

容儀端正 하라  
清廉潔白 하라  
誠心服從 하라  
責任完遂 하라  
信義一貫 하라  
公平無私 하라  
沈着果敢 하라  
信賞必罰 하라  
率先垂範 하라  
恩威兼備 하라

공군  
소식

### 공군 훈련시스템 미국 특허 등록

공군이 자체 개발한 '레이저 사격훈련 시스템 및 방법'이 국내 특허에 이어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공군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의 미국 특허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특허 출원 3년 4개월여 만에 등록이 완료된 이 기술은 영상분석 기법이 탑재된 레이저 모듈을 장착해 사격할 때 정확한 탄착 위치 검출로 사격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격훈련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군은 미국 특허 취득을 통해 향후 레이저 사격훈련 시스템 및 방법을 미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및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관련 협약·계약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공군 창군 발상지 표지 동판 설치

지난해 9월 19일 공군 창군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최용덕·이영무·장덕창·김정렬·박범집·이근석·김영환 7인이 한자리에 모여 공군 창군을 결의했던 장소에 '대한민국 공군 창군 발상지'임을 알리는 표지 동판이 설치되었다.

이곳은 당시 회합 장소로 사용된 김정렬 장군 자택 터(서울 성북구)로, 현재는 개인 소유의 건물이 들어서 있어 동판은 해당 건물 앞 인도에 설치되었다. 이번 동판 설치는 광복 이후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독립된 공군을 창설하는 데 힘을 합쳤던 항공 선각자들의 노력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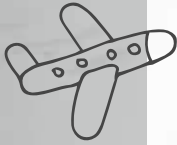


## 군수사령부, 전군 최초 국가품질경영상 수상

2019년 11월 13일 공군 군수사령부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전군 최초로 국가품질경영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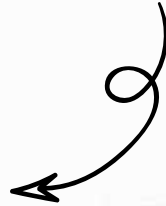
국가품질경영상은 품질경영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리더십, 전략기획, 고객과 시장 중시, 측정·분석 및 지식경영, 인적자원 중시, 운영관리 중시, 경영성과 등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군수사령부는 이번 대회에서 리더십, 운영관리 중시, 지식경영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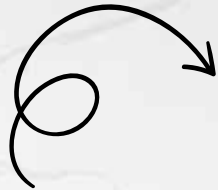




### 여군 최초 비행대대장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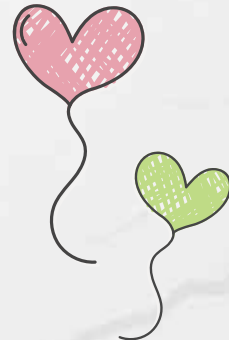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 최초의 여성 사관생도로 1997년 입교한 지 22년 만에 편보라·장세진·박지연 중령(이상 공사 49기)이 여군 최초의 비행대대장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비행대대장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조국 영공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비행대대장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 2019 탑건 조영재 소령

'2019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전투기 개인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990점을 획득한 F-15K 조종사 조영재 소령(공사 55기)이 '2019 탑건'으로 선정되었다. 조 소령은 "24시간 365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영공 방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동료 조종사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 "힘내세요!" 공군이 응원합니다!

공군은 2020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관생도를 비롯한 공군 장병과 가족, 공군 종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모금한 성금 1억 4,970만 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에 기부했다. 성금은 마스크 등 의료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하여 대구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앞으로도 공군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창군 70주년 기념 '공군 역사 학술회의' 개최

2019년 11월 7일 공군역사재단과 공군은 창군 70년을 맞아 공동으로 공군의 기원과 창군 이후 발전 과정을 학술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공군의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제6회 공군 역사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 70년 우리 하늘을 지킨 항공기들'을 주제로 한 특별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 스무 살 된 '하늘이' 다시 태어나다!

공군은 지난 20년간 활용된 '하늘이'의 개선 버전인 '리뉴얼(Renewal) 하늘이'를 2020년 1월 16일 공개했다. 공군 창군 50주년인 1999년에 제작된 하늘이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친근하면서도 강인한 공군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공군은 이러한 하늘이에 최신 트렌드와 다양성을 가미하고, 창군 70주년을 기념하고자 2019년 리뉴얼 작업에 착수했다. 다양한 복장과 동작이 추가된 모습으로 공군의 대표성과 범용성을 모두 담은 '리뉴얼 하늘이'는 대한민국의 영공 수호의 대표 캐릭터로서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



# AFA HIT NEWS



## 최용덕 장군 동상 제막식

2019년 11월 19일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공군 창군의 주역 최용덕 장군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제막식에는 6·25전쟁 출격 조종사, 역대 공군참모총장, 최용덕 장군 유가족 등이 참석하여 공사 경과 보고, 최용덕 장군 공적 소개, 제막, 공군참모총장 축사, 최용덕 장군 유가족 회고사, 공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용덕 장군은 항공 독립운동가로서 임시정부 시절 공군 창설의 초석을 다졌으며, 광복 후에는 국내 항공 단체들을 통합하여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창립하였다. 최 장군은 공군 창설의 주역 7인 중의 핵심으로서 사실상 공군의 상징적 인물이다. 공군 창설 후에도 공사심훈, 공군가 등을 집필, 작사하였다. 최 장군이 만든 공군의 결의는 오늘날에도 공군인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 중 하나이다. 사관생도들은 동상을 보면서 조국 독립과 공군 창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최용덕 장군의 투지와 헌신을 일상 속에서 기릴 수 있게 되었다.



### LG U+ MOU 체결식

공군사관학교는 2019년 12월 16일 (주) LG유플러스와 '5G 기술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과 ICT 신기술 적용 사관생도 교육에 관한 상호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을 바탕으로 공사 전 지역에 5G 기지국을 우선 구축하여 스마트 캠퍼스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마련했으며, 무인항공기(UAS) 임무형 교육 훈련, 창의 활동 공간 구축, 개인별 맞춤형 체력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행사

공군사관학교는 2019년 7월 26일 충북남부 보훈지청과 함께 청주·청원 지역에 거주하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마련되었다.

학교장은 6·25전쟁 당시 F-51 무스탕 전투기로 57회 출격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운 바 있는 김영환(공사 1기) 용의 자택을 찾아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 드리고, 김 장군이 말하는 전쟁의 참상과 조국의 중요함을 전해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천문대 천체투영관 개관식

2020년 2월 4일 학교장 및 지휘관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문대 천체투영관 개관식이 열렸다. 천체투영관에는 디지털 천체투영 시스템 및 돔 스크린과 최신 기술(VR, 4K 등)을 활용한 일체·몰입형 천체투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우주작전 교육을 위한 우주 환경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앞으로 사관생도 우주(기상) 교육 및 우주력 홍보, 인공위성 감시 분야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사이버작전 실습교육장 개소식

2020년 2월 12일 사이버작전 실습교육장 개소식이 열렸다. 사이버작전 실습교육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전에 대한 생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5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한 하드웨어와 단독 네트워크망을 바탕으로 동시 사이버전 실습이 가능하며, 인터넷망도 복합 구축되어 있어 사이버작전의 기본 원리 및 배경 지식 학습에 필요한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다. 생도들이 사이버전 실습 교육을 통해 미래 사이버 전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군 인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제72기 사관생도 입학식

2020년 2월 17일(월) 200명(여생도 20명, 수탁 생도 7명)의 제72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4주간의 강도 높은 기초 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72기 입학생도들은 학교장과 학부모, 친지들 앞에서 정식으로 공사에 입학하였음을 알렸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확진자 지역 부모들을 제외한 이들의 참석이 허용되면서 신입 생도들은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학교장은 축사에서 배움과 수련을 통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전사, 정예 공군 장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생도 중에는 공사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생도가 포함되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에서 온 수탁 생도들과 4년간의 공군사관학교 생활을 함께하게 된다.



## 제68기 졸업 및 임관식

2020년 3월 4일(수) 제68기 신입 소위 158명이 장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2010년 이후 10년 만에 대통령이 주관한 졸업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 초청 없이 주요 인사들과 총동창회, 최용덕 장군 유가족, 순직 조종사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졸업생에는 4명의 수탁 생도도 포함되었다.

공군사관학교는 부모님과 친지들 없이 진행된 졸업식에서 신입 장교들을 격려하기 위해 158명 모두의 가족이 보내준 영상 편지를 준비해 졸업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후 재교생과 군악대의 분열, E-737, KC-330, F-35A 등 공군 주력 항공기의 분열과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의 축하 비행으로 신입 소위들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했다.





## 총동창회 활동 이모저모



### 공군본부 방문 \_ 2019.7.28

총동창회 회장단은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원인철 참모총장 및 참모들과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7차년도 계획 사업 중 공사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공군본부 지휘부에서도 공동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공군사관학교 방문 \_ 2019. 7. 29

회장단은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및 참모들과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현역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공사발전후원회 창립 20주년 축하 만찬에 참석하여 그간의 활동과 업적을 격려하였다.



### 제27차년도 정기 이사회 \_ 2019. 7. 24

제27차년도 이사회에서는 운영 기수의 임기와 정부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운영 기수의 임기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현행 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서 의결되지 못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정하여 온라인상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 자문위원 간담회 \_ 2019. 9. 4

역대 총동창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총동창회 사업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특히 사망한 일반 동문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성무장학사업'에 대하여 자원 획득 방안과 지급 기준을 면밀히 수립해 추진할 것을 조언하였다.







### 예비역 이사 기수 간담회 \_ 2019. 9. 18

총동창회 회장단은 예비역 이사 기수(19~33기) 임원들을 초청해 친선 골프를 한 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장학사업의 재원 획득 방안과 지급 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평생회비 조기 완납 필요성과 회원 확보 추진 계획 및 지역별 선·후배 간의 유대 활성화를 위한 친선 골프 모임의 취지 등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현역 이사 기수 간담회 \_ 2019. 9. 24

총동창회는 계룡 지역에 근무하는 현역 이사 기수(34~47기)와 48~55기 임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학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과 평생회비 조기 완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에 현역 기수 임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전라권 (2019. 10. 8)



경상권 (2019. 10. 16)

### 지역별 선후배 친선 골프 및 간담회

각 지역별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권·경상권·전라권·충청권 친선 골프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만찬 시간에는 해당 지역 부대 참모들을 초청하여 예비역과 현역 회원 간의 유대 관계도 공고히 하였다. 3월과 4월 경기권과 서울권에서도 열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되었다.



강원권 (2019. 10. 23)



충청권 (2019. 10. 30)



### 친선 테니스대회 \_ 2019. 11. 16

제2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테니스대회가 공군사관학교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모두 4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친목 도모와 체력 증진의 시간을 가졌다.



### 생도 전대본부 회의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지원 \_ 2019. 11. 19

본회는 공사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모교에 1,000만 원을 기증하여 생도 전대본부 회의실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지원하였다. 리모델링은 F-35 모형 제작, 빔 프로젝트 설치, 백두산 천지 사진 필름 작업, 도배 작업 등으로 진행, 완료되었다.





**친선 바둑대회 \_ 2019. 11. 21**

제17회 친선 바둑대회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5기부터 28기까지 30여 명이 참가해 열띤 바둑 대국을 펼쳤으며, 지도 사범의 지도와 함께 친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순조회 초청 행사 \_ 2019. 12. 4



본회는 공군전우회와 함께 순직조종사부인회 회원 35명을 공군회관으로 초청해 위로 행사를 가졌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포함하여 52명의 순조회원 모두에게 선물을 전달하였다.

### 68기 졸업생도와의 간담회 \_ 2020. 2. 3

이영만 총동창회장은 졸업을 앞둔 68기 생도들과 '창조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생도들이 그동안 배워 온 것은 통제된 규범 속에서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교육으로서, 이는 창조적 사고에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겪어야 할 다변화된 현실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리더로서 역량을 갖추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생각하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공군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졸업을 축하하였다.





### 정기총회 개최 \_ 2020. 6. 18

본회는 2000년 6월 18일 공군호텔에서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사회 수준으로 회의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의 업무와 결산 보고 및 하늘사랑장학재단 비수혜 유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무장학사업 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제28차년도 회장으로는 최차규 동문이 선임되었으며, 28기 사관은 7월 1일부터 1년간 총동창회 운영을 맡아 이끌어가게 된다.

#### 제28차년도 총동창회 운영 임원

회 장 최차규  
 부 회 장 김영민(선임), 강영철, 김동수, 김명현, 김병철, 김주언, 김학수, 박병구, 박철규, 배관현,  
 신영덕, 안재모, 이대원, 이상욱, 정재운, 정형래, 지윤규, 최승관, 탁효수, 하태직  
 감 사 김재훈, 이필광  
 사무총장 이석원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_ 2020. 6. 18

이희근(1기)

이희근 동문은 한국전쟁 당시 전투 조종사로 89회 출격하여 조국 하늘을 지켜낸 위국헌신의 표상으로서, 제15대 참모총장 재직 시에는 통합군 논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신성인의 자세로 정예 강군의 기반을 마련하며 모교의 명예를 빛내는 데 기여하였다(장남 대리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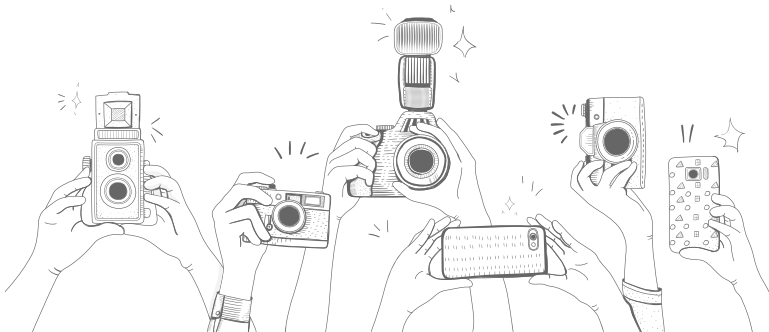
최동환(27기)

최동환 동문은 퇴역 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근면성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사업가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였다. 특히 모교 발전에 끊임없는 관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후원하여 모교의 명예를 빛내는 데 기여하였다.



김기천(56기)

항공우주의료원 내과 전문의로서 새로운 항공의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간소화 및 비행적성평가 연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공군 역학조사반장으로 대구 기지에 파견되어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여 모교의 명예를 빛내는 데 기여하였다.





# 서울 ADEX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10. 19 (화) ~ 24 (일)

서울공항



[www.seouladex.com](http://www.seouladex.com)



## ‘성무장학사업’ 기틀을 마련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취임 초 다짐했던 것처럼 많은 회원님들께서 총동창회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호 간 우애와 친목을 다지도록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더더욱 1년이라는 한시적인 임기가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그동안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선후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왕성한 참여로 진한 동기애를 보여주신 27기 석로회원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관심 부족으로 챙기지 못했던 비공중 근무자 중 우리 곁을 떠난 회원님들의 유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성무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각별히 후원하여 주신 27기 최동환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회원 간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유자녀들의 자부심도 고양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예비역 회원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각 지역별 신분 간 다양한 친목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방·현역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최차규 신임 회장을 비롯한 28기 애채회원님들께 운영을 인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해 주신 선배님들의 헌신과 당시 89회 출격하셨던 1기 이희근 전 참모총장님의 리더십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투혼을 이어받아 현역 회원님들도 조국 영공 방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앙인 코로나19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위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응 동참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데 일조하리라 믿습니다. 한편,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에서 땀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내드리며, 특히 대구에서 의무 방역 활동에 헌신해 주신 56기 김기천 회원님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헌신과 봉사로 소임을 다해 주신 황연주 사무총장과 설민진 실장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회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이임 총동창회장 이영만



## 후배들이 힘차게 날갯짓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28차 총동창회장직을 맡게 된 최차규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겨 주신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호국의 간성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성무대의 언덕을 오르던 때가 엇그제인 듯한데, 어언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저희 28기생들이 모교 총동창회의 운영 기수로서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음에 깊은 감회와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총동창회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순조롭게 운영되도록 힘써 오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선배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다 발전적인 모교 총동창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비정상인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도 총동창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27기 선배님들의 열성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상황이 정상화될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적 재난 상황이 가능한 한 빨리 극복되고 정상적인 총동창회 활동이 재개될 것을 기대하면서 28기 애채회 동기생들과 함께 단결하여 더욱 활기찬 총동창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 공군은 명실공히 세계 일류 공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훌륭한 공군의 발전상은 많은 공군인들의 노력의 결실이며, 그 과정에서 동문들은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비역이 되어 바깥에서 공군을 바라보는 동문들은 마음속에 모두 큰 자부심을 견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단결되고 활기찬 총동창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으로써 후배들이 일류 공군으로서 더욱 힘차게 날갯짓 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성원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28기 애채회원들이 운영의 중심이 되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창회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8기 애채회원들은 총동창회 운영 기수의 소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전 동기생들의 참여 아래 차분히 운영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동안 선배님들이 추진해 오신 총동창회 사업들을 승계하여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선후배 회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신규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8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을 위한 선후배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당부드립니다.

공사 교가의 가사 중 한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공군사관학교는 우리 공사인들에게는 ‘영혼의 기지’입니다. 공사인이라는 자부심과 명예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일깨워 주는 귀한 문구라 생각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운영 기수라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선후배 회원님들께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해 총동창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이영만 회장님을 비롯한 27기 선배님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동문회원 여러분과 가족들 모두 잘 대처하시고 상황이 호전된 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신임 총동창회장 최 차 규



## 공군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및 임원진 여러분!

공군 전 장병을 대표해서 2020년도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공군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동문들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총동창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공군과 모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이 임하시는 이영만 회장님과 27기 임원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이 중책을 맡으신 최차규 신임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1기 선배님들의 고귀한 헌신과 용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계승한 선배님들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은 공군사관학교만의 빛나는 전통을 만들고 찬란한 유산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후배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자랑스러운 정예 공군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공군에 거는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조국 영공을 수호하고, 더 나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창군 100주년을 내다보며 강하고 스마트한 항공우주력을 건설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후배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로 비상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항상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공사 총동창회가 앞으로도 공군과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군 차원에서 총동창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공군과 공군사관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이임하시는 이영만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최차규 신임 회장님이 이끄시는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원 인 철

# 군인연금수급권자 전용 상품안내

KB국민은행으로 군인연금이체(변경)시 **우대혜택** 제공

## KB 군인연금협약대출 **최대 2억원**

### ■ 대출금리 **최저 연 1.94%**

(2020. 3. 26기준,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미만, 일시상환, 우대이율 최고 연 1.0%p 적용 시)

**대출대상** | KB국민은행으로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군인연금수급권자 (KB국민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심사기준 충족 시)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일시상환 및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대 3천만원)  
- 대출한도는 연소득,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대출금리** | 금융채 6개월 변동금리 연 1.07%+가산금리 연 1.87%p - 우대금리 최대 연 1.0%p (신용등급 3등급, 2년 미만, 일시상환, 2020.3.26 기준)  
주) 연금이체(최고 연 0.3%p), 신용카드(군인연금종 포함 최고 연 0.3%p), 자동차(연 0.2%p), 스타뱅킹(연 0.1%p), 적립식예금(연 0.1%p)

**대출기간 /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1년이상 최장 5년이내(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이자 또는 원리금은 매월 25일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0.6%)×(잔존일수÷대출기간)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준비서류** | 군인연금증서(카드형 포함) 또는 군인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통장(필요 시), 신분증 등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서류 문의 포함)

\* 본 상품은 당행으로 연금이체가 필수이며, 대출상환/접수 시 타 금융기관으로 연금이체 중인 경우 당행으로 연금수급계좌를 변경하여 1회 이상 연금 입금 확인 후 대출상환이 가능합니다.  
\* 약정납입일(지용이체일)은 매월 25일로 지정하고 연금수령계좌를 자동차 계좌로 지정해야 하며 약정납입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KB 나라사랑적금(직업군인용)

### ■ 군인연금수급권자 맞춤형 적금 **최고 연 5.6%**

(2020. 3. 26, 가입기간 3년, 우대이율 연 3.5%p 적용 시)

**가입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자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저축금액** | 매일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

**기본이율 및 최종이율**

(2020. 3. 19 세전 기준, 단위 : 연, %)

적용이율	계약기간	1년제	2년제	3년제
	최고	5.0	5.3	5.6
기본	1.5	1.8	2.1	

**우대이율** | 최고 연 3.5%p 연금(급여)이체(연 2.2%p), 신용카드(연 0.5%p), 주택청약종합저축(연 0.3%p), 앱(App)가입(연 0.3%p), KB스타클럽(연 0.1~0.2%p)

**준비서류** | 군인연금증서(카드형 포함) 또는 군인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가입대상 확인서류 외 별도 실명확인증표 필수



##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

KB국민은행으로 군인연금 이체 시 다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면제횟수
· KB국민은행 ATM 출금·이체 수수료, 다른은행 ATM 출금 수수료	무제한
· 편의점(GS25·세븐일레븐) ATM 입금·출금·이체 수수료 * 단, 편의점 내 일부 자동화기기(미니스·현대프론트캐시 등) 제외	무제한
· 인터넷·폰뱅킹 이체 수수료 * KB국민은행 우대통장으로 연금 수령 및 이 통장에서 이체 시	무제한
· KB국민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 KB국민은행 우대통장으로 연금 수령 및 이 통장에서 이체 시	월 5회

### ! 상품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 !

- \* 해당 상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제 2항에 따라 금융보안원에게 보호제어, 보호연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규약이 모든 예금보조 제1금융상품의 원금과 수익에 이자를 합하여 1년간 "최고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최고이율은 우대이율을 포함한 이율이며, 우대이율은 정기예치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무담보이자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에 연 1%의 비용이 적용되며, 처음 무담보이자 (10만원)까지 비용은 전 50%의 고액과 한한이 부담합니다.
- \* 약정납입일이 경과하면 연체가사기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가사기 부과합니다.
- \* 대출상환일(지용이체일)은 매월 25일로 지정하고 연금수령계좌를 자동차 계좌로 지정할 경우 대출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스마트 상담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 BEYOND

MILITARY ENGINES

# 오늘의 작전 준비 상태 내일을 위한 전력 강화

제5세대 F-35 라이트닝 II를 위한 프랫 & 휘트니의 F135 추진 장치는 고객과 고객의 미션을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새로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F-35의 전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랫 & 휘트니의 추진 장치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FLY FURTHER AT [PRATTWHITNEY.COM](http://PRATTWHITNEY.COM)



# 개교 70주년 특집





공군의 창군과 발전을 이끌었던 공군사관학교의 역사 \_ 김기동  
국가와 민족의 진정한 자유의 날  
— 최용덕 장군의 민족정신과 항공사상 \_ 이윤식



# 공군의 창군과 발전을 이끌었던 공군사관학교의 역사



## 항공인을 꿈꾸는 사람들

항공력은 20세기 동력비행기의 발명이란 과학기술상의 발전을 통해 정립되었다. 애석하게도 20세기 전반 한반도는 일제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항공력의 도입을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인을 꿈꾸는 한국인들은 일본이나 중국 등에 소재한 항공학교에 들어가 조종사나 정비사 등으로 거듭났다. 20세기 전반의 연이은 전란 속에서 일본과 중국 등은 항공 병력의 확보를 위해 이들의 자원自願을 수용했다.

항공인을 열망한 동기는 다양했다. 누군가는 독립운동의 목적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동경에서 항공학교에 들어갔다. 또한 군인으로서 출세하려는 욕구에서 항공학교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다양한 동기와 별개로 전쟁의 경험을 통해 항공력의 위력을 실감했다. 이들은 항공력이 없다면 국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

해방 직후 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한 각계각층의 활동이 다각도로 전개되었을 때, 항공인들은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항공력 건설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중국 공군에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노력의 중심점으로 자리했다. 그 결과 1946년 8월 최용덕崔用德을 수장으로 한 항공인들의 통합단체인 한국항공건설협회가 결성되었다. 이 협회 내에서도 이른바 '7인의 간부', 즉 최용덕과 이영무李英茂, 장덕창張德昌, 박범집朴範集, 김정렬金貞烈, 이근석李根皙, 김영환金英煥은 다른 항공인들과 함께 공군의 창군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은 정부 수립 즈음에 항공부대의 창설이란 성과를 낳았다.

당시 미군정은 한국의 항공력 구축이 38도선의 군사적 충돌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러한 활동을 제약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에 비행기 원조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 자력으로 비행기를 생산할 수 없었던 한국이 구비한 항공 전력은 연락기 십수 대에 불과했다. 항공 전력을 급속히 증강했던 북한의 위협



김기동

공군사관학교  
역사 교수

을 내세운 한국에게 미국은 한국이 독립 군종軍種으로서 공군을 유지할 만한 항공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즉, 미국은 한국이 지원받은 비행기를 운용할 만한 조종사와 정비사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식민지배 아래 항공인의 양성이 이뤄졌지만, 그 수는 수백 명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국의 판단도 무리는 아니었다.

따라서 공군의 창군을 위해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인 육성에 있었다. 정부 수립 후 항공인들이 「국군조직법」에 필요시 공군을 독립시킬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삽입한 후 곧바로 항공 병력 양성을 위한 육군항공사관학교 창설에 나섰던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항공 병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선 사관학교보다 채병덕蔡秉德 참모총장의 말처럼 ‘장교양성소’가 적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육군항공사관학교와 그 후신인 공군사관학교는 6·25전쟁 때까지 정규 사관 교육과 별개로 장교 양성소의 기능을 병행하기도 했다. 육군항공사관학교의 첫 교육은 ‘제1차 소집 학생’이라 불린 단기적인 장교 양성 과정이었고, 공군사관학교는 1970년대 초반까지 이들의 입교일인 3월 15일을 개교기념일로 삼았다.

그렇지만 당시 항공인들은 군 일각의 반대와 여건의 미비를 무릅쓰고 항공 병력의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의 설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항공 병력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시 육군 내 다른 학교들처럼 특기교육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 양성 기관이 ‘사관학교’의 지위를 갖추고자 했다.



### 육군항공사관학교, 공군 창군과 동시에 공군사관학교로 개명

육군항공사관학교는 김포비행장 일원에 터를 잡았다. 당시 김포비행장에는 공군의 전신인 육군항공기지사령부가 자리했다. 공군의 창군이 추진되던 공간에서 육군항공사관학교는 새로운 군의





진해 공군사관학교 전경(1953) | 미국 공군으로부터 항공 작전을 교육받는 사관생도들

인적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육군항공사관학교는 공군의 창군과 동시에 공군사관학교로 개명했다. 공군사관학교는 전쟁 전까지 유일한 공군의 장교 교육기관이었다. 공군사관학교는 항공과 직결된 조종과 정비, 통신 특기뿐만 아니라 독립 군종에게 요구되는 재정·정보 등 다른 병과의 장교 교육도 담당했다. 창군기 공군사관학교는 공군이 독립 군종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공군사관학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개전 초기 공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들을 귀가 조치할 만큼 어려웠지만, 유엔군의 반격 이후 공군의 핵심 부대로 역할했다. 대구에서 다시 모인 사관생도들은 서울 수복 후 여의도비행장 인근의 성남중학교에서 교육과 본부의 업무 지원을 병행했다. 1·4후퇴 후 모슬포에서 이뤄졌던 F-51D의 훈련은 공군사관학교장의 통제 아래 이뤄졌다. 그리고 한국 공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획득 후 임관한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351고지 등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또한 공군사관학교

는 자체적인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고급 장교의 육성을 위한 공군대학의 기능까지 수행했다. 1951년에 조성된 진해 캠퍼스는 사관생도와 기성 장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었다.

휴전 후 공군의 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 양성이란 현재와 유사한 성격의 부대로 자리했다. 역할의 축소는 공군사관학교의 중요성이 감소했다기보다는 공군이 독립 군종으로 정립되는 과정에서 사관학교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군은 전후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군사관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서울 대방동에 현대식 캠퍼스를 조성했다. 공군사관학교는 1958년 서울 이전 후에도 공군 본부 및 공군대학과 같은 공간에 위치하면서 공군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는 공군 내 다른 부대보다 개방적인 공간으로 모험항공기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공군에 대한 국민의 호감을 고취하는 데 일조했다.



### 항공력의 발전을 책임진 공군사관학교

산업화의 추진기, 항공인 양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군사관학교는 항공력의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기도 했다. 1965년 공



1958년 서울 대방동 캠퍼스 준공식 | 1966년 당시 서울 대방동 캠퍼스 전경



공군사관학교 청주 캠퍼스

군사관학교는 초음속 풍동 연구시설을 도입해 항공공학의 연구와 교육에서 신기원을 열었다. 특히 1970년대 데탕트의 국제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의 요구가 대두하자 박정희(林正熙)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한 기술군 발전을 추진했고, 공군사관학교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항공력 증강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교육을 조종사 양성에 특화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에 조종 훈련이 반영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공군사관학교는 단순히 조종사 양성을 넘어서 군 리더와 항공력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의 목적도 겸비했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를 절충하면서 항공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사실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에 조종 훈련을 반영한 결과가 조종 장교 양성에 긍정적이지도 않았다. 문민정부 수립 즈음 공군사관학교는



조종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자원을 선발했다. 2016년 이후 공군사관학교는 조종 우선 선발 제도를 부활시켰지만, 항공우주정책학과를 신설하는 등 조종사 양성을 넘어서 항공력 운용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취지를 유지했다.

1985년 공군사관학교는 현재의 위치인 청주로 이전했다. 공군사관학교는 이전 과정에서 서울 캠퍼스보다 확장된 규모의 공간을 확보했다. 그 결과 학교는 풍동실험실과 천문대, 수중생활훈련장, 항공체력단련장 등의 전문 시설을 갖춰 항공우주 관련 연구 수행과 사관생도 교육에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안중근홀 등 현대화된 공연 시설과 성무공원, 항공기 전시장 등의 시설은 사관생도뿐만 아니라 청주 시민의 문화·체육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민·군 화합에 일조했다.

청주 이전 후 공군사관학교는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면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공사 2020 계획’과 ‘공군사관학교 장기발전기획연구-Vision 21C’, ‘공사발전기획위원회’, ‘교육체계 컨설팅’ 등의 활동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시대적 변화상의 반영은 1990년대 세계화의 열기 속에서 영어 원어민 교육의 시행, 정보화 장비와 교육 도입, 3군 중 최초 여성 사관생도 선발 등의 성과를 낳았다. 시대적 변화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은 현재도 이어져 공군사관학교는 최근 대두한 4차 산업혁명을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군사관학교는 공군의 주무대인 항공·우주 분야의 선도를 위해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 연구를 진행했으며, 항공·우주에 특성화된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도 학교의 교수진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과 공군 역사 연구 등에 참여하면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70년 전 공군사관학교는 공군의 독립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었다. 또한 공군사관학교는 6·25전쟁 전후 공군이 실질적인 독립 군종으



- 1 교육 체계 혁신 대토론회(2019)
- 2 5G 기반 교육 환경 조성 추진(2019)



로 자리할 수 있도록 역활했다. 공군사관학교는 공군의 틀이 갖춰진 이후에도 공군 장교의 양성과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 연구를 수행하여 공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공군사관학교의 역할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급변하는 시대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현재 공군사관학교는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공군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연구 기관으로 자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空軍博物館  
R.O.K. AIR FORCE MUSEUM

空軍博物館

## 국가와 민족의 진정한 자유의 날

- 최용덕 장군의 민족정신과 항공사상

## 공군 창군의 산파 역할을 하다

최용덕 장군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민족정신’과 ‘항공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다. 공군은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창군 70주년의 해인 지난 2019년 11월 19일 공군사관학교 교정(공군박물관 앞)에 최용덕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그 제막식을 열었다. 1969년 8월 15일 장군이 서거한 지 무려 50년 만이다.

1898년에 태어난 최용덕 장군은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군인의 길을 걸었다. 1920년에는 중국의 보정비행학교에 입교하여 조종사가 되었다. 그는 망명 시절 중국 공군에 적을 두면서 중국 공군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임시정부 광복군의 간부로서 광복군 비행부대 편성을 준비하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이후에는 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김정렬 장군 등과 함께 항공부대를 만들어 1949년 10월 1일 공군을 창군하는 데 산파 역할을 하였다. 국방부 차관으로 있다가 공군에 재입대하여 공군사관학교 제2대 교장으로 있으면서 6·25전쟁을 맞이하여 전쟁을 수행했으며, 1952년 김정렬 장군에 이어 제2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1949년 정부 설립 직후 국방부 차관을 역임하고, 전역 후 1960년대 체신부 장관과 자유중국(현재의 대만) 대사를 역임한 것을 빼고는 평생을 군인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용덕 장군은 철저한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채 무인(武人)의 삶을 살았다. 구한말 의병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경주 최씨 집안의 남아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민주화가 된 오늘날의 관점에서 ‘민족’의 개념이 구태의 그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보여준 최용덕 장군의 민족정신은 서구나 일본의 제국주의가 지녔던 ‘민족’의 개념이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세습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반인륜 집단이 부르짖고 있는 가짜 ‘민족’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이들 침략자들에게 저항하였던 한민족의 정신이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최용덕 장군은



이윤식  
·  
작가





최용덕 장군은 해방 이후  
김정렬 장군 등과 함께 항공부대를  
만들어 1949년 10월 1일 공군을  
창군하는 데 산파 역할을 했다.

1953년 3·1절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생각건대 세계에는 고금을 통하여 많은 독립투쟁사가 있지만 우리 민족의 영원한 정화인 저 3·1독립운동만큼 장렬을 극하고 정의를 다한 피의 투쟁사는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현대 국가에서 ‘국민’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 지향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민족정신 자체가 그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최용덕 장군의 족적에서 보여준 민족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 항공인으로서 최용덕 장군의 항공사상은 일본 제국주의자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압살하려 했던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강력한 문명 이기利器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첫 번째 행사였던 1953년 10월 1일, 제5회 항공일 기념사에서 최용덕 장군은 다음과 같이 항공력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피력했다.

자유스러운 국민에 강제된 휴전선이 확정되어서부터 공군 장병은 일각을 다투어 맹훈련을 쌓고 있습니다. (...중략...) 장래에 더 나은 국가의 안전보장 유지와 국제 제후를 위한 책임의 자각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국제선을 지켜 나가고 세계에 평화를 도입하는 역군이 되어 국위를 내외에 선양하기에는 신에기에 의하여 공군이 증강되어야 합니다.

1956년 공군 정훈감실은 공군 기관지였던 『코메트』에 실린 「최용덕 장군의 발자취」란 글에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활약함’, ‘공군 창건을 위하여 활약함’, ‘멸공성전을 위하여 활약함’, ‘공군 현대화를 위하여 활약함’ 등 최용덕 장군의 정신을 조명하였다. 1950년대 말에는 강신항 교수(성균관대 국문과)가 공군 정훈장교로 있던 시기 ‘하늘의 개척자’라는 제하에 최용덕 장군의 어록을 정리해 놓았다.

사열 중인 최용덕 장군



## 최용덕 장군 동상 제막의 의미

그 이후로 사실상 최용덕 장군은 공군과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 갔다. 그러다가 2006년 공군은 ‘공군 역사 상징 인물’로서 최용덕 장군을 부활시켰으며, 2012년 ‘항공 독립운동사’ 복원의 일환으로서 최용덕 장군을 재조명하여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정리를 전개하면서 2019년 최용덕 장군의 동상 제막에 이르렀다.

동상의 제막은 대국민 과시용이나 한 인물의 우상화가 아니다. 국가와 공군에 한평생 헌신한 최용덕 장군의 정신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공군인들의 강력한 미래지향적 의지의 피력으로 보고 싶다.

최용덕 장군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시기에 “국가와 민족의 진정한 자유의 날”을 위해 싸우고 힘을 기르자고 하였다. 그렇게 통일을 염원하였다. 통일이란 인류 지성사의 관점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정의의 측면에서 실현되어야 할 이 땅의 과제이다. 민주화에 힘썼던 함석헌 선생과 함께, 종교철학자 유영모 선생의 제자였던 김홍호 선생은 ‘통일의 어려움’에 대하여 생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8·15 해방은 됐는데 뭐가 나왔나 하면 발입니다. 6·25전쟁, 그때는 몸뚱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머리입니다. 머리는 통일을 상징하고, 몸뚱이는 독립을 상징하고, 발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8·15가 돼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6·25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얻은 게 있습니다. 통일입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난산이라 합니다.

2020년 올해로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했다. 이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최용덕 장군의 발자취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용덕 장군 동상 제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상념에 젖는다.



2019년 11월 19일 공군사관학교 교정(공군박물관 앞)에 세워진 최용덕 장군 동상



# 회원 기고

대청봉 곶기 \_ 김익래

그리운 대방동 시절 \_ 정윤태

바보 영웅 '미스터 삼립' \_ 김정호

공군 문화 카페 Mr. Bong \_ 이봉우

타국에서 후배들과의 즐거운 만남 \_ 최영순

베를린에서 바르샤바까지 자전거 평화대장정 \_ 성일환

스쿠버 다이빙 예찬 \_ 최환종

나의 세렌디피티 라이딩 동호회 \_ 김광희

'돌아온 청춘', 환갑 기념 남미 여행 \_ 한경표

유익한 항공 여행 정보 \_ 은진기

만 원이 준 행복 \_ 박창용

지진 경험 \_ 송기준

소주 두 잔 \_ 이두희

부모님의 손 \_ 정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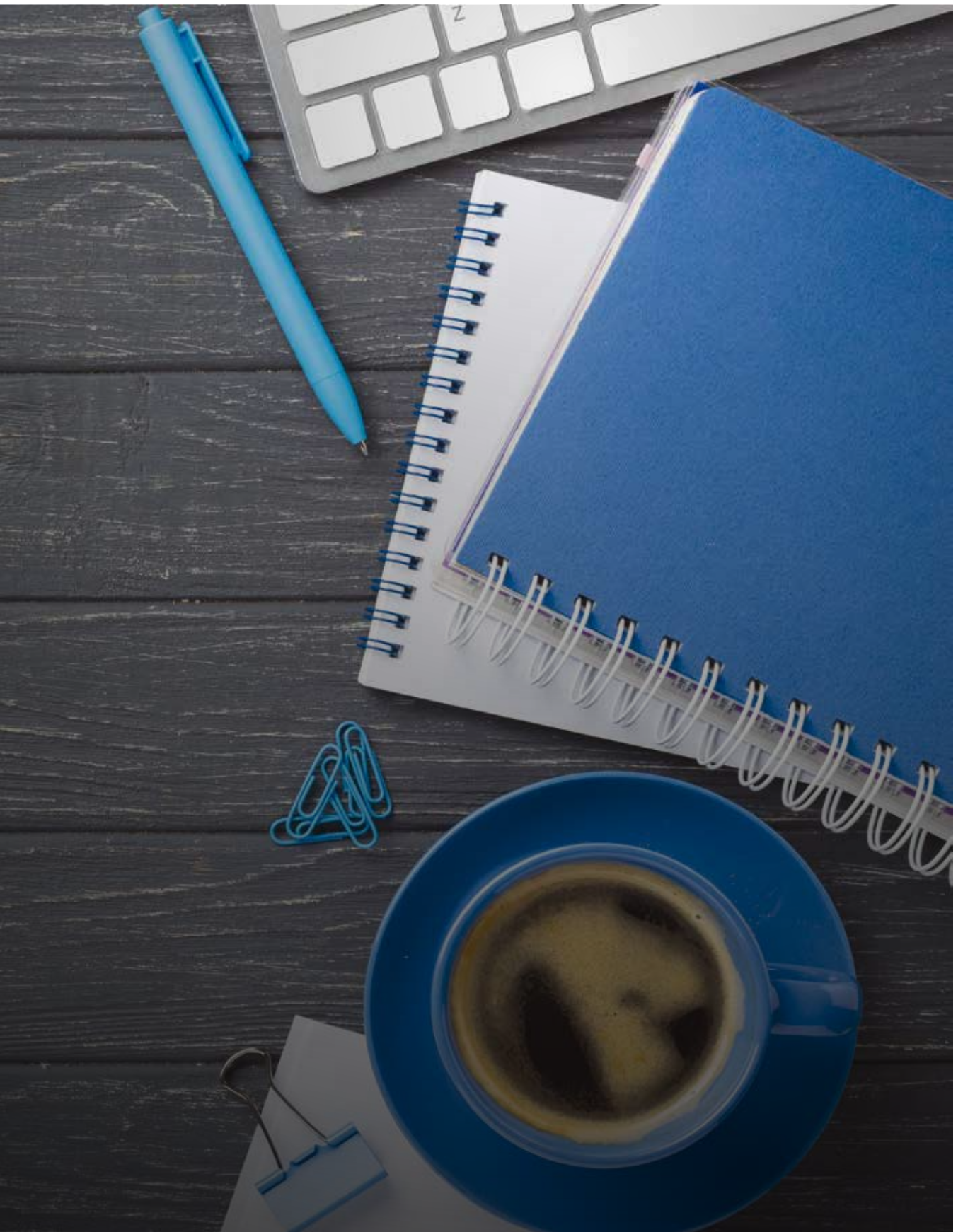
연극 <서교수의 양심>을 보고 \_ 이형걸

허리디스크 다스리며 100세까지 \_ 김국창

『매천야록』, 탄식과 절망의 기록 \_ 김동기

루비 반지 \_ 김익래

내 남편은 아직도 사관생도 \_ 신서영







## 대청봉 걸기



김익래 · 16기

### 대청봉!

등산 마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한 이름이고, 매력과 흥분으로 다가오는 이름이다. 딱히 마니아가 아니어도 그 이름 석 자에서 묻어나는 질푸른 웅장함에 압도되고, 구름 위에 잠겨 버린 그곳엔 신선들이 노닐 것 같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환상적인 이름이다. 언젠가는 꿈에서라도 가보고 싶은 동경의 판타지 겨울왕국 같은 존재로 떠오를지도 모른다.

나는 비록 산마을에서 태어나 산과 더불어 자랐지만, 50세가 넘어서 대청봉 정상 표지석을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등산이란 명목으로 산행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등산이란 그저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울긋불긋 아웃도어 조끼에 지팡이 짚고 여가를 즐기는 노년 운동으로만 여겨 왔다.

산!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주기만 하는 산! 어릴 적 나에게 산이란 땀감을 주고 먹을 산채와 열매를 주는 생활의 터전일 뿐, 마치 물·공기와 같이 그저 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 산은 그저 산일 뿐이었다. 앞에는 앞산, 뒤에는 뒷산,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둥글고 모난 산들! 그저 보이는 게 산뿐이었던 탓이었을까?

### 대청봉이란 거물을 만나다

그러다 50이 넘어서 어느 해 대청봉이란 거물을 만나 산의 새로운 세계와 접하게 되면서, 산이란 그저 산이 아니라 두려움을 용기로, 침체를 활력으로 새 정기를 넣어 주는 하나의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0년대 말 몸담고 있던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 대대적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많은 직원들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정든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재벌 오너가 없는 국민기업으로 불리던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후일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되기까지 2년여 기간 동안 2만여 임직원들은 닥쳐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몸을 내맡긴 채 불안 속에 흔들림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잡아 활기를 돋우고, 기운을 내서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당시 비상경영 체제 하에 경기·강원·인천 지역 통합영업본부를 맡고 있었던 나는 흐트러진 영업 지점장들의 동요를 막고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 고심해야 했다.

때로는 바닷가 야영장에서 캔 미팅도, 해수탕에서 사우나 미팅도, 때로는 외진 시골의 산채를 빌려 독(항아리) 막걸리 미팅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는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개개인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추스르기엔 너무나 진부한 방법들이었다.

그럴 즈음 문득 사관생도 시절의 관악산 행군이 떠올랐다. 매년 6·25 기념 정기훈련으로 철모에 배낭과 짐총까지 완전무장 상태로 학교 연병장(지금의 보라매공원)에서 출발하여 관악산 정상(863m)을 넘어 연주암에 집합하는 가장 강도 높았던 훈련이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가야 하고,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해야 하니 처음부터 구보로 뛰어가야 하는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이었다. 실제로 그해 동료 한 명을 산속에서 잃기도 했다. 그때의 관악산은 산이 아니고, 생사를 가르치는 훈련장일 뿐이었다.

높은 산에 아직도 눈이 남아 있는 3월, 경기·강원·인천 지역 모든 지점장들에게 지점장 회의 소집 공문을 보냈다.

일시 및 장소 : 0월 0일 09시, 설악산 대청봉





공문을 받은 지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진위 여부 문의가 빗발쳤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안일무사 기업 문화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파격적인 아이스 브레이크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회의 소집 날짜가 다가오기까지 1주일여 간, 80여 개 지점들에서는 한편으로는 신선태의 충격에, 또 한편으로는 산행 준비로 활력이 넘쳐났다. 우선 시도는 성공이었다.

우리는 대청봉 회의 전날 오후 6시에 경포대 바닷가에 모였다. 그리고 동해 바다 파도 속에 함성으로 스트레스를 뿜어내고 설악산 숙소로 이동했다. 한계령 코스로 야간 산행을 택한 우리는 자정에 한계령으로, 그리고 새벽 2시에 한계령 휴게소에서 인원 점검을 끝내고 3명씩 조를 이루어 대청봉으로 향했다.

사실 지점장 중에는 첫 산행인 자도 있고, 몸이 약한 자도 있어 ‘혹시 사고라도 나면...’ 하는 두려움과 후회도 있었지만, 4년간의 관악산 행군 훈련에서 터득한 인간의 무한한 위기 돌파력, 조직이란 틀 속의 소속감에서 발산되는 무한한 정신적 통합력에 대한 믿음 하나를 달랑 바닥에 깔고 두려움 없이 대오를 이끌었다.

올라도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산길, 가쁜 호흡, 아픈 다리, 앞뒤에서 올려오는 구호 이어가기 함성에 힘을 모으며 우리는 인내의 끈을 엮어 갔다.

깊은 야밤, 깊은 산속 험한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앞으로



정상을 향해 내디디면서 우리의 대오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부도의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힘든 전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7부 능선쯤 왔을까, 함성도 멈추고 꺼져 가는 석유등같이 지칠 대로 지친 대열, 어쩔 수 없이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진퇴양난의 체념 속에 가쁜 숨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활기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나는 잠시 멈추고 아래를 향해 힘껏 함성을 질렀다.

“어떤 놈이 여기서 회의 소집을 했어? 이 미친놈아!”

그러자 바로 뒤를 이어 앞뒤 여기저기서 “그래 어떤 놈이야? 이 미친놈아!” 웅성웅성하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몇 시가 되었는지 손전등 불빛 없이도 주위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정상이 멀지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기상 나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신병들의 숙소처럼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날

우린 일곱 시간의 산행 끝에 9시 회의 시간에 맞추어 대청봉 정상에 함께 모였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우뚝 서서 장엄한 기상을 뿜내고 있는 ‘대청봉’ 표지석!! 그가 뿜어내는 저 자신만만한 자세!! 그때 그 표지석은 우리들에게 “힘차게 일어서라!”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 표지석의 함성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모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동질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한마음이 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대청봉 인증샷 속의 한 얼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본부장님, 그날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대청봉 쫓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 그리운 대방동 시절



정윤태 · 18기

###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 주고

한참 지난 일이지만 1960년대 가입교 시절이 생각납니다. 어찌 그때의 일들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왜 그리도 배가 고했는지요.

악명 높은 관악산 돌과 훈련을 할 때는 무장 구보도 있었습니다. 편대별로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면서... 한 사람이 낙오하면 페널티 5분이 주어졌고 우승 편대는 특박에다 보너스로 삼립빵 파티까지 하였습니다. 반면 우승하지 못한 편대는 내무반 지킴이에다 청소까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십 명이 쓰러질지라도 연주암을 향하여 악을 쓰며 올라갔지요.

관악산 정상에 오르면 삼립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꿀맛 같은 삼립빵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김포가도로 장거리 구보 훈련을 마친 후에는 침대 속에서 오란다빵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우리 시절에만 잠깐 있었던 기다란 빵입니다. 생도 매점의 여주인인 고마담과 삼립빵, 오란다빵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 임관 50주년을 맞는 노병이 되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하늘의 꿈을 먹고 자라던 메추리들이 어느덧 임관 50주년을 맞이하는 노병이 되었습니다.

흰머리를 휘날리며 노을 진 서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몇 정거장 앞두고 달리는 기차 안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누구의 노랫말처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가, 찬바람이 불면 후더덕 떨어지는 낙엽처럼 허무한 것이 인생이던가.

살아오면서 사랑의 추억이 없었다면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구름처럼 인간은 무익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따뜻하게 살아온 자는 결코 외롭지도 않고 주어진 인생의 승리자라 할 만합니다.



서쪽 먼 산속으로 파묻혀 간 태양은 어둠을 이기고 다시 새벽을 맞이할 것이며, 붉게 떠오른 태양은 온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희망과 사랑을 선사할 것입니다.

노병의 육신은 세월로 인해 늙고 병들지라도, 살아오면서 주고받은 사랑으로 인해 정신은 죽지 않고 영원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가족과 후배에 대한 사랑은 내색하고 표현한 적 없어도 묵묵히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대방동의 추억은 사랑의 열매인 듯 마음속에 여전히 따듯이 남아 있지요. 그 당시 여의도 비행장에는 허허벌판에 쓸쓸한 불빛만 반짝 거렸었구요. 이제는 흔적조차 없어 사랑의 추억으로만 어렴풋이 그려 봅니다.

대방동 골짜기에 대해서는 사랑의 추억만 넘쳐납니다. 학과장과 내무반 그리고 연병장과 생도 식당, 함께 피땀 흘렸던 대방동의 동료들이 그리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낡고, 육신은 늙어서 사라질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억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사랑의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생도 생활을 했던 오랜 기억의 대방동 골짜기를 또다시 그려 봅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 새로운 하늘의 생명으로 탄생하다

어느 날 눈보라치는 한밤중, “메추리는 팬츠 복장으로 전원 옥상에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온몸으로 혹한기 훈련을 받았지요. 추위도 잊고 밤이 새도록 좁은 간격 나란히, 넓은 간격 나란히를 반복하면서….

눈보라치던 날의 혹한기 옥상 훈련은 어찌 보면 죽었던 동태가 생태가 되는 훈련이기도 했지요. 세상의 때묻은 허물들이 한 겹 두 겹 벗겨지면서 새로운 하늘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과정이었지요.

“춡나?”(선배님들이 작은 목소리로), “안 춡습니다!”(메추리들은 큰 소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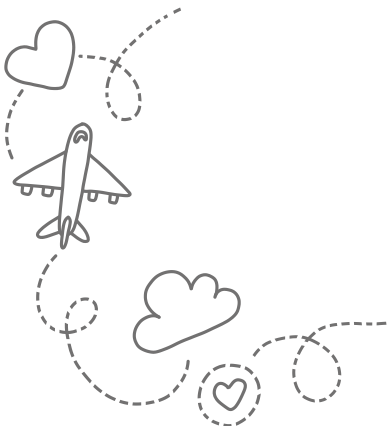
개성이 강했던 우리의 흑매회원들은 아주 순한 양들이 되어 갔지요. 점점 군인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익어 갔지요.

하늘의 간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영원히 잊지 못할 ‘얼차렷’. 이를 통해 한번 선배는 영원한 선배가 되었지요. 18기 흑매회원 모두는 순종하는 후배가 되어, 17기 봉우회원 모두를 선배로서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는 민간인 정신이 완전히 씻겨져 나가고 강인한 군인으로 정신무장이 되었지요.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반항한 적도 없답니다.

봉우회 선배님들의 사랑의 매와 노고로 흑매회가 잘 익어서 금년에 임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관 50주년 행사가 기대됩니다.



## 바보 영웅 ‘미스터 삼립’

### 반세기의 추억을 떠올리며

성무대에 입교한 지 어언 반세기가 흘렀다.

지난날의 생도 생활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행사 아닌 행사가 하나 생각한다.

어느 화창한 신록의 계절 5월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다. 메추리 4개 편대가 옥상에 운집하여 웅성거리며 시끌벅적한 가운데 팽과리까지 동원, 응원 태세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 행사는 다름 아닌 ‘삼립빵 먹기 대회’였다. 나는 빵 먹기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우리 편대의 대표 선수로 출전하였다.

대회가 시작되자 소속 편대를 대표한 선수들은 자리를 잡고 시작 신호와 함께 앞에 놓인 빵을 먹기 시작하였다. 1·2편대의 대표선수들은 25개가 고비였던지 둘 다 중도 포기해 버렸으며, 4편대 대표선수인 하○윤과 나는 이미 25개를 돌파하고 힘들었지만 결전을 다지며 먹기를 계속했다.

그렇지만 아! 이게 마지노선인가. 이미 배는 빵빵했으며 속은 느글느글거렸다. 응원 소리도 저 멀리서 아련히 들리는 듯 고통이 시작되었다. 물론 우승하려고 대회 당일 아침과 점심 두 끼를 굶은 것이 큰 도움은 되었지만, 옆으로 힐끗 보니 하○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표정이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주위에서는 웃고 떠들며 팽과리 치면서 응원 열기가 제법 뜨거웠다. 누군가가 내 등을 두드리고 있었으며, 물컵이 계속하여 공급되었다.

주위에서 빵 먹는 숫자를 세는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윤이 쓰러



김정호 · 22기



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나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하나만 더 먹으면 이긴다는 생각에 힘을 내본다. ‘한 개만 더 먹으면 1등이다!’ 내 입에 다시 물컵이 들어왔고 두어 잔 들어킨 후, 숨고르기를 크게 한두 번 한 다음에 마지막 한 개를 억지로 입속으로 틀어넣었다.

우리 편대에서는 “와! 김정호 이겼다!”는 승리의 함성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큰 땀자로 바닥에 쓰러지며 까무러쳤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깨어나 보니 동기들이 “김정호, 괜찮아?” 하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바로 앉혀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주었다. 걱정이 되어 내 몸상태를 확인(?)하는 듯했다. 나는 고개만 아래위로 끄덕거렸다. 빵먹기 대회 of 부상副賞으로 삼립빵 세 박스를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난 후 형님이 면회를 오셨는데, 위병소에서 헌병 한 명이 “혹시 김정호 생도 형님 되시는지요?” 하고 물어 보더라. “그렇다”고 하니, 웃으면서 뒤돌아서서는 “김 생도하고 많이 닮아 보이신다. 저번에 미스터 삼립 됐잖아!” 하며 헌병 돌이서 중얼거리더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헌병들이 ‘미스터 삼립’이라고 하는지 내게 물어 보신다. 나는 그간에 일어났던 빵먹기 대회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는 내가 일등을 해서 그런 소문이 난 것 같다고 했더니, 어찌하여 그리 어리석은 대회에 나갔느냐고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직도 동기들 모임에 가면, 그날 정말 누가 우승하였는지(?) 궁금해 하면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다. 지금은 하ㅇ운 동기가 작고하여서 내가 스스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리고 가끔 마트에 들르게 되면 유독 삼립빵이 눈에 반짝 쫓는다. 그때 마다 반세기 전인 그 옛날의 그 사건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 혼자 실소하곤 한다. 왜 그리 미련하고 어리석고도 무모했는지….

이 사건(?)은 우리 동기 쌍매기수의 웃음거리 일화로 아직까지 남아 있다. 바보 영웅이 아니었던가 싶다.

## 공군 문화 카페 ‘Mr. Bong’

### 공군의 탈을 벗고 제2의 인생을 살다

지금은 빛바랜 기억이지만 36년 전, 당시 해군본부가 있었던 경남 진해시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겠다고 나선 소년을 떠올린다. 희망만큼 자라지 못한 키에 사관학교 입학시험 때도 줄곧 걱정을 했던 아이였다. 가까운 해군을 두고 굳이 공군을 택한 것도 키에 대한 제한이 공군사관학교가 0.5cm 적은 이유도 있었다.

2차 시험인 정밀 신체검사와 체력검사를 위해 처음 가본 서울은 분주한 도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른다. 1차 신체검사 때 숙였던 키를 정밀하게 보는 줄 알고….

화려한 생도복, 땀에 찌든 전투복, 날이 세워진 정복들과 약복들… 그 소년은 사관학교 생활을 합하면 34년 11개월을 공군의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 오십 중반을 넘긴 중년이 되어 공군의 탈을 벗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시간은 흘러 다시 돌아오지 않고 추억은 남아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는 프랑스의 유명한 평론가 생트 뵈브의 말이 생각난다.

나는 공군을 사랑한다. 지금 누리고 있는 호사(?) 때문만은 아니지만 키 작은 소년이 가졌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 청색의 공군을 사랑한다. 어떤 때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서러움도 있었지만,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을 기르며 또 다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주었던 공군을 사랑한다. 그래서 군복을 벗을 때 자유로움보다 섭섭함이 더 컸으나 보다.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듯 아쉬웠던 감정은 공군본부 교회에서 마련해 준 전역 예배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봉우 · 35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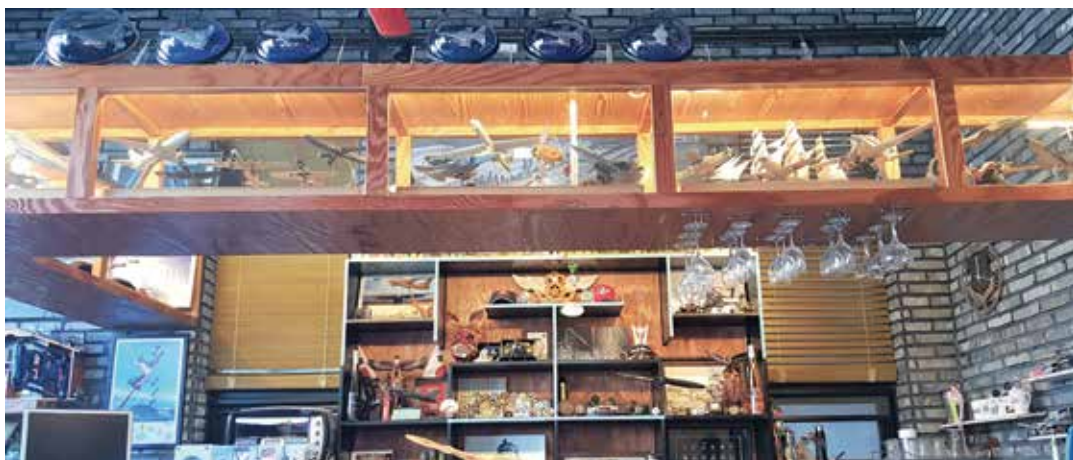
카페 벽면을 장식한 공군 기념품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다. 함부로 버리는 것이 싫었던 것은 그리 부유하지 못한 생활 때문이었겠지만 인연을 맺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그래서 인지 근 35년 동안의 군 생활을 하면서 공군과 관련된 물건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공군에 대한 나의 기억’이라고 한다. 딱히 의도를 가지고 모은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것들을 통해 나의 지난날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몇 번의 이사를 통해 나의 소중한 기억들이 아내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이후로는 박스로 정리해서 집 창고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

### 세력을 늘려 가고 있는 기념품들

전역을 몇 년 앞두고 향후 거취에 대해 고민을 할 때였다. 이미 직장을 충남으로 옮겨 버린 아내와 딸을 찾아 이사온 장인·장모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었고, 계룡 근처에서 향후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근면한 아내 덕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구입했고, 계획보다 빨리 생각지도 못한 1층 상가 건물이 포함된 3층 주택을 짓게 되었다.



건물이 완공될 무렵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이사 걱정을 하면서 아내가 물었다. “저놈의 기억들 어떻게 할 거냐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사무실에 있는 물건도 옮겨야 한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나의 성격상 수집해 놓은 것은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아내가 1층 상가의 적은 평수에다 진열을 하면 어떻게겠느냐고 먼저 의견을 제시했다. 얼마나 고마운지….

곧바로 건물 공사를 주관하던 사장을 통해 내부 인테리어를 부탁했고, 집 건축과 동시에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 지금도 아내는 왜 그때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내게 1층을 허락한 며칠 뒤, 그 공간에 24시간 편의점을 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었기 때문이다.

이사와 동시에 1층 공간도 정리되기 시작했다. 내부 설계 당시 이미 진열장과 벽화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부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단지 두 아들도 학업과 군복무로 나가 있던 터라 혼자서 꾸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평생을 괴롭히던 이놈의 작은 키는 3단 사다리의 도움을 받아도 아슬아슬한 위기를 몇 번 넘겨야 했다.



공군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의  
소통 공간인 카페 내부

지금은 동기들과 선후배님들이 추가로 기부한 기념품들이 세력을 늘려 가고 있다. 점점 좁아지는 공간 탓에 더 이상 기부를 받지 말라는 아내의 말은 귓등으로 흘린다. 뒷날 남기고 간 그들의 기억을 보존해 주는 것이 이 공간이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공간을 꾸미면서 ‘조주기능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전역 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았다. 조주기능사는 쉽게 말하면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뒤,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했다. 커피와 관련된 민간 자격증인 바리스타와 달리 조주기능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섞어 먹는 술에 무슨 자격증이냐고 하겠지만 술이 인간에게 주는 장점



만을 고려한다면, 술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죽을 것같이 전투 태세로 임하는 군인들의 음주문화 개선에는….

### 공군 추억의 놀이방, 'Mr. 붕' 카페

좁은 공간과 전시된 물건의 특성으로 인해 카페와 같은 형태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국방수도'라는 별명이 붙은 민군 화합 도시인 이곳 계룡시에서 군 관련 물건들로 인테리어한 특화된 카페가 있는 것만으로도 볼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군에 한정된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름은 아내의 주장대로 'Mr. 붕'으로 하기로 했다. 아내는 공군의 냄새보다는 나의 냄새가 이 카페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지금까지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아는 사람들의 교체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기억을 남기지 않았어도 공군이었던 추억을 가진 사람들의 놀이방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억 속에서 인간은 가장 부유하면서도 또 가장 빈곤하다”고 한다. 또 누군가는 “추억은 오늘도 행복한 기억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오늘 나도 하루를 보내면서 공군과 나의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나의 행복한 인생의 추억을 또 하나 남겨 본다.





## 타국에서 후배들과의 즐거운 만남



최영순 · 27기

### 미국으로 이민 가다

2003년 초 가족과 상의 끝에 미국으로의 쉽지 않은 이민을 결정하고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애틀랜타에 정착한 지 벌써 17년가량 되었다. 이민을 가기 위한 결정이 쉽지 않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아내의 동의가 용기를 주었다.

미국에 도착하여 약 2년 동안은 영어 공부, 영주권 취득 문제, 직장 생활로 정신이 없었고 힘들었지만 가족의 힘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극복했다. 현재는 애틀랜타 국회의사당, 선트러스트뱅크(Suntrust bank) 야구장, 조지아 테크(Georgia Tech) 등 6개의 축구장 청소와 앨라바마 소재 8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 아웃소싱을 맡아 하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된 상태다.

2007년 초 웨스트포인트(West Point) 출신인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앨라배마 몽고메리 맥스웰(Maxwell) 기지에 미 공군대학이 있고, 한국 공군 장교들이 유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정착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과거 군 시절에 후배들과 의기투합하며 지냈던 지난 시절이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기회를 만들어서 후배들을 한번 만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몽고메리에 출장을 갈 기회가 있어서 그곳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혹시 한국 공군 장교들이 오면 전해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L대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군에 있을 때 근무지는 달랐지만 안면이 있던 후배라서 반갑게 소식을 주고받았다.

그해 추석을 기해서 AWC·CSC·SOS 과정 후배들 다섯 가정을 애틀랜타의 집으로 초대해서 하루 저녁 기거시키면서 운동도 하고 식



반듯하고 기백 넘치는 후배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도 하며 공군의 여러 가지 변화된 소식도 듣고 추억담을 나누었다. 모든 면에서 반듯하고 기백 넘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이국에서 약간 외로움을 타고 있던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를 계기로 유학 온 서너 명의 후배들과 연락하며 함께 정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나중에는 인근 미군기지에 파견된 후배 4~5명도 초청해서 함께 동문회 형식으로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가 이곳 공군 보라매회 회장이 사후장교 출신이라서 3년 정도는 보라매회 멤버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다.

### AWC 교육과정 중인 후배들과의 만남

아이들 교육 문제(대학 진학 등)로 신경을 쓰다 보니 한동안(약 3년) 후배들과 시간을 갖지 못하기도 했지만, 2015년에 직장을 앨라바마 어번(Auburn)이라는 곳으로 옮기고 아이들도 안정되면서 후배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2016년에 맥스웰 기지로 찾아가 AWC 교육과정 중인 후배를 만나 지금까지 후배들과의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능력이 되는 한 앞으로도 후배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 이제는 1년에 2~3번 만날 수 있도록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정겹고, 헤어지면 후배들이



후배들과의 만남은 이곳 생활의 활력소이기도 하지만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한다.



또 보고 싶고, 만나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후배들과의 만남은 내게 이곳 생활에서의 활력소이기도 하지만, 후배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한다. 든든한 후배들 모습을 보면 우리 공군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든다. 근래 아내의 기억력이 약해지는 등 다소 걱정이긴 하지만 후배들을 만나면 과거 공군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기억하기도 하고 즐거워해서 다행스럽다.

앞으로는 얼마 전에 이민 와서 인근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 선후배 2명과 의논해서 그들과 같이 후배들의 힘든 유학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쓸 계획이다.

후배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곳에서의 내 생활을 반성하기도 한다. 가끔 이런저런 일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게으른 생각이 들면, 만났던 후배들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부지런히 뛰어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 가족 모두 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과 용기,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후배들도 이국에서의 유학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한시절의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베를린에서 바르샤바까지 자전거 평화대장정

### 새로운 도전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서울에서 겨우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즈음(2014년 7월)에 조선일보의 한 기사가 내 눈을 사로잡는다.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대장정 15,000km”

기사를 보고, 또 보고….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때 내 나이 60세였지만 군에서 단련된 체력을 바탕으로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고 싶었다. 15,000km의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길이기에 자전거 페달을 밟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으리라 막연히 생각되었다. 그러면서도 100일 이상의 긴 자전거 여행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었다.

접수 시한 마지막 날 밤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접수를 위해 아들의 도움을 청했다. 서류 접수 후 기다리는 시간은 꽤나 길게 느껴지고 지루했다. 베를린에서 출발하여 폴란드, 시베리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자전거 대장정을 생각하면서 혼자만의 꿈속에서 나래를 펴고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10명 이내의 대원 선발에 수천 명이 신청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지원자가 많아서 3개의 소구간을 추가 편성하여 별도의 인원을 선발하기로 했단다. 나에게 베를린에서 폴란드 구간(1구간: 약 800km)에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다.

이제부터 자전거 대장정의 시작이다. 자전거 경력은 광주 비행훈련 중일 때 기어가 없는 자전거를 좀 타본 것이 전부였다. 그 당시엔 요즈



성일환 · 26기





음과 같은 MTB, 로드 바이크 개념도 없었다.

출정 시한은 한 달 정도 남았다. 자전거도 구매하고 간단한 정비 교육과 항공기 이동을 위한 포장(분해·조립) 교육도 받았다. 다리 힘으로 페달만 밟으면 될 줄 알았던 자전거 훈련은 엉덩이·어깨·손바닥 등이 아파서 매일 훈련할 수가 없었다.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은 기어 변속을 제때 못하여 중간에 멈추어 서곤 했다. 의지만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반성하였다.

베를린으로 출발하기 전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모임과 교육이 있었다. 산악자전거 1세대라는 가수 김○○씨도 보였다. 대다수가 자전거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인 것 같았다. 자전거 관련 내용의 대화는 나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4대강·국토 중주, 동해안·제주도 라이딩, 산악자전거 이야기 등은 생소하기만 했다.

자전거 왕초보인 내가 무슨 배짱으로 15,000km에 도전했던가? 지금 생각하면 자전거에 대한 무지가 용기를 준 것 같았다.

### 독일행 비행기에 자전거를 싣다

2일간의 정비 교육과 자전거 분리·포장 교육을 받고 자전거 박스를 비행기에 실었다. 그룹 일행과 함께하는 외국 자전거 여행이기에 모두 꿈에 부풀어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여 베를린까지는 국내선 비행기로 갈아탔다. 그리고 일행이 기다리는 숙소에 도착했다. 15,000km 원정대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런데 원정대원들의 덩치가 보통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히말라야에서 주로 생활하는 전문 산악인이 많았다. 얼마 전 히말라야에서 운명을 달리한 김○○ 대장(히말라야 14좌 무산소 등정 기록)도 있었다. 그리고 대학교 조정 선수와 산악자전거 선수, 산동반도에서 스페인까지 282일간 자전거 여행을 한 경력자 등 체력이 좋은 사람들을 엄선하여 뉴라시아 자전거 원정대로 선발한 것 같았다. 한 달 전 젊고 강한 사람들 틈새에 감히 원정대 참가 지원서를 제출한 것을 생각하면 쓴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베를린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진행된 출정식

이미 도착한 대원들의 도움으로 자전거 조립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출정식 행사는 베를린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국회의원과 베를린 유명 인사, 그리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베를린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 후에 옛 베를린 장벽을 따라서 자전거 라이딩이 시작되었다. 남아 있는 장벽은 페인팅으로 요란스럽게 낙서가 되어 있었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베를린 시민들과 함께한 라이딩은 우리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베를린 장벽 자전거 길은 하루하고 반나절이 더 소요되었으며, 경로상에 포츠담의 옛 회담장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옛 베를린 장벽을 돌아보면서 ‘대한민국 통일’이라는 희망을 가져 보기도 하였다.



요란하게 페인팅으로 낙서가 되어 있는 옛 베를린 장벽

### 바르샤바를 향하여 출발

베를린에서 출정 행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뉴라시아 자전거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주 원정대원은 1구간 대원과 함께 대열을 정비하였고, 중국에서 스페인까지는 자전거 여행 경험이 있는 황○○ 대원이 선도에서 이끌어 주었다. 구간 대원들은 주 원정대원들 사이에 위치시켰는데, 수신호와 주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달리는 자전거 행렬은 장관이었다. 가끔 길가의 시민들은 우리들을 향해 격려와 함께 해맑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기자단 차량과 군수지원 차량이 뒤따랐다. 어쩌면 참 행복한 자전거 원정길이었던 것 같다.

베를린 시내를 벗어난 뒤 자전거 길은 평온하였다. 산은 보이지 않고 끝없이 펼쳐진 들판

은 지겹기까지 하였다. 하늘을 향해 쪽쪽 뻗어 있는 소나무와 자작나무 숲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다. 산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지는 폴란드까지 이어진다. 이곳 농촌은 옛날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은 사람은 없을 듯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유사시에 지형을 이용한 방어선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세계대전 당시 탱크를 앞세운 독일이 폴란드를 쉽게 공격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

자전거에 대한 사전 경험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 100km의 라이딩은 나에게 점차 고통을 안겨 주었다. 페달을 밟을 힘보다도 안장 위에 있는 엉덩이가 더 큰 문제였다. 원정 3일째부터 엉덩이에 물집이 생겼다. 한쪽 엉덩이씩 번갈아 이동해 가면서 페달을 힘겹게 밟는다. 오르막길에서 뒤편 간격은 내리막길에서 겨우 대형을 맞추어 간다. 대원들 중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지만 젊은 여성에게 뒤편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물집 통증을 참

으면서 페달을 밟고 또 밟고... 자전거에 몸을 실은 지 9일째가 되었다. 중간에 하루를 쉬었지만 하루 평균 100km를 달렸다. 여전히 엉덩이 부위 통증이 고통스럽고, 어깨·손바닥·허벅지·목 등 온몸의 피로가 누적되어 갔다. 가끔씩 타이어도 펑크가 난다. 그때 약간의 간식과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의 목적지인 바르샤바 시내로 진입하면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았다. 1개 차선을 차지하면서 바르샤바 시내를 라이딩을 하니 마치 우리가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 같았다. 도심 가운데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체 초대형 광고판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준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 같다. 덩달아 우리 목에 힘이 저절로 들어간다.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15,000km 뉴라시아 자전거 원정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베를린에서 바르샤바까지 1구간(약 800km) 자전거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 4대강 종주와 국토종주

베를린에서 바르샤바까지의 자전거 여행은 나에게 군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었다. 함께한 대원들의 입에서 수시로 오르내리던 우리나라 자전거길!

나도 도전해 보자.

사전 훈련 때 답사한 아라뱃길과 한강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자전거길 시작은 정서진(인천 아라뱃길 시작 지점)이다. 정동진은 많이 들어 본 지명인데 정서진은 자전거를 타면서 처음 들어 본 지명이다. 그리고 정남진이라는 지명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우리나라 강은 서울을 중심으로 북한강과 낙동강(약 390km)을 제외하고 대략 140~170km 정도 되며 1박2일 코스다. 4대강 보 공사는 갈수기에 모래사장으로 변해 있던 강을 물이 풍부한 강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되며 경관이 정말로 좋아 보인다.





우리나라 자전거 길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났는지 지금은 유럽·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에서 온 라이더들이 많이 보인다. 강 둔치의 들꽃밭 가운데로 뻗어 있는 자전거 길은 환상적이다. 계절 따라 변화를 느끼면서 강바람과 함께하는 라이딩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경험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강과 의암댐 호반은 멋있기도 하지만 춘천 닭갈비 맛을 볼 수 있고, 섬진강은 매화와 벚꽃을 벗 삼아 봄 내음 맡고 물소리 들어 가면서 달릴 수 있어서 좋고,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도로의 자전거 길은 푸른 바다와 함께 멋지게 조화를 이룬다. 우리나라 자전거 길은 모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명품 한국의 자전거 길이다.

나에게 자전거는 테니스와 함께 전역 후 나의 좋은 취미생활이 되었다. 동기 몇 분과 4대강과 국토 종주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동문 라이딩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호응도는 높지 않다. 자전거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가격이 천만 원 넘고 사고 위험이 많다는 부정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핑곗거리를 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자전거 전문 매장에도 가보고 한강변과 주말에 춘천과 양평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전철 맨 앞쪽과 뒤쪽 칸을 한번 타보라고 권하고 싶다. 자전거로 꼭 차 있고 60대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다.

자전거는 가장 균형적인 운동이라고 한다. 우리 몸 근육의 70%가 있는 허벅지를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이고, 어느 정도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어 지겹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전거 길 주위의 경관이 참으로 아름답다.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들도 관심을 갖고 점차 많이 찾아오는데, 안방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억울함은 없어야겠다.

## 스쿠버 다이빙 예찬

### 스쿠버 다이빙 입문

스쿠버 다이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3학년 생도 시절이었다. 당시 생도대에서는 주말에 휴게실에서 영화(VTR)를 상영했는데, 어느 주말에 007 영화를 보았다(제목은 기억이 안 난다). 늘 그렇듯 제임스 본드가 바다에서 적에게 맨몸으로 쫓기던 중, 바닷속 한구석에 놓여 있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장면이 있었다.

그때는 스쿠버 다이빙 및 장비(공기통·호흡기 등)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어떻게 바닷속에 방치(?)되어 있던 공기통에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고 있으며, 어떤 원리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주위에 물어 봐도 대답해 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2000년 가을에 사이판으로 가족여행을 갔는데, 그때 머물던 리조트에서 무료로 ‘스쿠버 다이빙 강습’ 시간이 있었다.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미국인 강사가 간단하게 스쿠버 다이빙 장비 사용 요령과 수중 환경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다이빙을 체험했다.

이때 강사가 발살바(Valsalva)에 관한 설명을 했다. 공중에서나 사용하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귀가 압력에 적응하는 과정이 공중이나 수중이나 같은 개념임을 알고는 수중 환경을 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었다. 비록 수영장에서 30~40분 정도의 짧은 강습이었지만 생도 시절에 가졌던 궁금증이 모두 풀렸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우연한 기회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최환종 · 32기



일반적으로 ‘스킨 스쿠버’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러나 스킨 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은 비슷해 보이긴 해도 엄연히 다른 잠수 방법이다.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은 수중호흡기(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를 지닌 채 부력조절기, 즉 BCD(Buoyancy Control Device)나 BC(Buoyancy compensator)를 입고 잠수하는 수중 다이빙(underwater diving)이다.

SCUBA는 원래 잠수 장비를 가리키는 명사였지만 현재는 이 방식의 기구를 사용하는 잠수 활동 자체도 스쿠버로 일컬으며, 또한 형용사적 언어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다이버가 등에 메는 통은 산소통이 아닌 ‘압축 공기통’이다.

스킨 다이빙(Skin Diving)은 공기통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산소 다이빙, 맨몸으로 잠수한다고 해서 스킨 다이빙이라 부르기도 한다.

### 다이빙 예찬

본격적인 다이빙은 전역 후에 시작했다. 다이빙을 하면서 주위의 동기생·선후배들에게 스쿠버 다이빙 입문을 권유했는데, 많은 분들이 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나 막연한 두려움(바다에 대한 부담, 조종사인 경우 고막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을 가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스쿠버 다이빙은 과학적인 이론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교육을 하고 다이빙을 즐기는 것인 만큼, 소정의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절차만 잘 준수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건전한 운동이다(수중에서 즐기는 것이기에 70세 이상 되어도 즐길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다이빙을 예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다에서 다이빙을 즐기다 보면 자연과 나, 바다와 내가 한몸이 된 느낌과 절대적인 평안함을 느낀다. 적당한 수심과 적당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노라면,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과 내 호흡 소리에 집중하면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꽤 오래전에 단전호흡을 배우면서 느꼈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편



전역 후 시작한 스쿠버 다이빙,  
다이빙을 마친 후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의 상쾌함이란 말로써  
표현하기 힘들다.

안한 느낌과 비슷하다. 그리고 다이빙을 마친 후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의 상쾌함이란 말로써 표현하기 어렵다.

둘째, 바닷속에 있으면 ‘천연 지압’을 받는 기분이다.

거창하게 ‘파스칼의 원리(밀폐된 용기에 담긴 비압축성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지점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바닷속에 있다 보면 바다의 압력이 내 몸에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연 지압’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로 수심 깊이 내려갈수록 허리에 착용한 납 벨트가 조이게 되는데, 바다의 수압에 따라 몸이 조금씩 압축(?)됨을 느끼게 된다. 자연이 선사하는 천연 지압에 감사할 뿐이다.

셋째, 다이빙을 마친 후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와 석양을 바라보며,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을 마시고 같이 다이빙한 동료들과 담소하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훌륭한 휴식이다. 천국이 따로 없다.

필자는 가끔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혼자 또는 지인 몇 명과 조용히 다녀올 수 있는 ‘바닷속에서의 풍류, 스쿠버 다이빙’을 즐긴다. 물론





영화 <니모를 찾아서>로 유명한 흰등가리(필리핀).



전역한 이후의 얘기이다.

### 스쿠버 다이빙 버킷 리스트

우선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해야 국내 또는 해외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국내에서는 수영장 실습 및 이론 교육, 그리고 바다에서 4회 다이빙을 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괌·사이판 등에서는 2일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바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 단기 숙성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자격증 취득 비용은 동남아에서는 미화 250~300달러 정도이고, 국내에서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리고 수영을 못한다고 다이빙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수영을 잘 못해도 다이빙은 즐길 수 있다. 공기통을 등에 짊어지고 호흡기로 호흡하면서 바닷속에 들어가므로 호흡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다이빙을 주로 해외로 나가서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바다는 기온이 낮고, 시야가 불량할 때가 많다.

지난해 5월 주문진 근처에서 고교 동창생과 다이빙을 했는데, 수온은 섭씨 16도, 시야는 오리발이 겨우 보일 정도로 좋지 않았다. 이것은 다이빙이 아니라 고문이다. 명경지수와 같이 맑고 투명한(오키나와는 수중 시야가 50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수온이 따뜻한 바다(필리핀·사이판 등은 평균 수온 섭씨 28도 내외)에서 용궁과 같은 수중 풍경을 보면서 다이빙을 하고 있으면 심신이 편안해진다. 속세를 떠나 신선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다.

둘째,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하는 비용과 필리핀·괌 등지에서 하는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요즘은 저가 항공사가 많이 생겨서 그만큼 비용 부담이 적어졌다. 평소에 절약해서 생활하면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정도 가까운 해외로 다이빙을 다녀올 수 있다. 더욱 절약하면 분기 한 번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숙소에서는 잠만 자겠다는 개념으로 저렴한 숙소를 찾아야 한다.

해외로 가는 다이빙을 바라보는 시각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춥고 시야가 불량한 바다에서 ‘특수부대 훈련 같은 다이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명경지수와 같은 바다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당연히 “명경지수와 같은 바다로 간다”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전역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다. ‘이제까지는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봉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도 일하고 봉사하겠다’고. 그 일환으로 전역한 다음 해부터 필리핀 세부에서의 다이빙을 시작으로 해외 다이빙 여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다이빙 지역을 돌아보고자 ‘스쿠버 다이빙 버킷 리스트’를 작성했다. 일명 ‘남태평양 스쿠버 다이빙 5개년 계획’.

다이빙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체력이 허락할 때까지...



## 나의 세렌디피티 라이딩 동호회



김광희 · 30기

### 팔당대교의 녹음 속에 빛나는 은륜

기해년 끝자락에서 1년 동안의 나의 궤적을 살펴본다. 올해도 건강 관리를 위해 마라톤, 등산, 국선도를 꾸준히 하겠다는 다짐이 수양록(1978년 2월 1일 가입교 이래 40년 이상 기록 중)의 서두를 변함없이 장식하고 있다. 책읽기 50권, 통기타와 사진 촬영, 가족여행, 당구 배우기, 평생 학습원 강의 수강 등 소박한 버킷 리스트가 이어서 펼쳐진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 사전적 정의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데, 인간관계에서 우연치고는 너무나 필연적인 만남으로 인해 요즘 말로 대박을 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7월에 출범한 공사 총동창회는 기존부터 이어온 바둑대회나 단체 등반에 추가로 라이딩, 테니스, 장거리 트레킹 등의 동호회를 확대함으로써 동문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총동창회 라이딩 동호회가 남긴 자취 중에서 형형색색의 저지와 고글을 착용한 매력적인 포즈,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어우러지는 팔당대교의 녹음 속에 빛나는 은륜은 이미 내 마음을 팔당 저 너머를 향해 달리게 하는 세렌디피티였다.

2013년 전역 후 여가 시간에 집에서 가까운 학의천변을 자전거로 달릴 때마다 대한민국도 유럽 못지않게 자전거 마니아들이 많으며, 자전거 도로도 잘 조성되어 있으니 의지만 있으면 서울~부산까지 달릴 날도 머지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듯이 그릇

된 라이딩 자세와 비효율적인 페달링으로 인해 오른쪽 무릎 장경인대 염이 불청객처럼 찾아왔다. 50km 이상을 달리면 도저히 페달링을 할 수가 없으니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가 기어 변속 미숙으로 앞바퀴가 들리는 낙차까지 겪다 보니 한동안 자전거 타는 데 심신이 모두 위축되어 있었다.

###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늘 뇌리에 계산과 두려움 때문에 유보했던 장거리 라이딩의 첫 번째 도전을 총동창회 동호회로 인해 용기를 갖고 시작하게 되었다.

2019년 5월 20일에 합류한 총동창회 라이딩 동호회 일정은 잠실 합수부에서 모여 한강을 따라 팔당 방면으로 달려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 남양주까지 다녀오는 것이었다. 집에서 잠실합수부까지 달리는 거리를 포함하면 왕복 100km가 족히 넘는다. 과연 무탈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동호회 선배님들의 격려 말씀과 세심한 지도 덕분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완주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나도 내가 어떻게 평소의 두 배가 넘는 거리를 통증도 느끼지 않고 달렸는지 모른다. 선배님들의 기를 받고 무한 신뢰한 덕분인 듯하다. 역시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명언이고 지혜의 말씀이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영의 신으로 알려진 피터 드러커가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 순간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할 때다”라고 했듯이, 자의반 타의반 도전한 두 번째 라이딩은 1박2일로, 문경새재와 안동댐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걷기만 해도 땀으로 얼룩지는 8월 중순의 기온은 섭씨 35도를 넘나들었다. 동호회에 편입해서 3개월 동안 평지를 달리는 데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수준에서 국토 종주 구간 중 업힐이 5.4km로 가장 길다는 이화령을 넘는다는게 과연 가능할까? 핑계를 대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었으나,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각별한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8월 중순, 수안보와 소조령을 경유하여 이화령 업힐 5.4km를 달렸을 때.

기회를 쉽게 저버릴 수 없어서 도전하게 되었다.

수안보·소조령을 경유하여 이화령 업힐 5.4km 구간은 호흡도 거칠어지고 허벅지도 경직되어 중간에 하차해서 끝바(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것) 하고 싶은 유혹이 수시로 찾아왔다. 그때마다 선도에서 이끌어 주신 총동창회 선배님과 바로 옆에서 독려해 주신 K선배님, 그리고 페이스 조절 요령을 알려준 L후배님의 덕분으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당시의 극한 체함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선배들과 조국의 산하를 함께 달리다

2019년은 태풍이 유난히 빈번하였다. 10월 2일에 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에 착륙할 거라는 예보가 있는 상황에서 4일부터 2박3일간 낙동강 종주 라이딩을 세 번째 도전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다소 걱정이 되었다. 현역 때 늘 염두에 두었던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는 기상이 라이딩에 미치는 영향으로 치환하여 판단해야 할 것 같았다.

점촌터미널에서 동창회 선배님을 중심으로 7인이 모여서 2박3일 동안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함안보를 거쳐서 낙동강 하굿둑 을숙도까지 산하를 달렸다. 태풍이 할퀴고 간 흔적들이 곳곳에 있어 우회도로를 부득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천이 범람하여 발생한 뚝에서는 자전거를 번쩍 들고 가야만 하는 상황도 있었다.

모든 게 생경한 경험이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고행(?)과 비

교될지 모르겠으나, 하루에 100km 이상을 사흘 동안 달리고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낙동강 하굿둑에 도착하니 일종의 스탕달 신드롬(예술 작품을 본 사람이 충격과 감동으로 인해 격렬하게 흥분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증상)을 느꼈던 것 같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성공은 도중에 멈추지 않음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자랑스런 공군사관학교 동창회의 일원으로 조국의 산하를 함께 달렸다는 것은 감동이요, 성공이라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다.

라이딩을 마치고 동창회 밴드에 간단한 후기와 함께 복구된 왜관철교의 인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 화이팅!! 자랑스럽다. 잘 하였다.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등 격려의 답신이 이어졌는데, 가장 인상 깊은 대선배님의 글을 발췌해 본다.

내 고향이 왜관이며 6·25 때 네 살이었다. 왜관철교 끊어진 그 지점 때문에 낙동강을 도강하지 못한 인민군의 주공, 보병 2개 사단, 기계화 1개 사단이 도강을 못하고 강 서편에 발목이 묶여 있을 때, B-29 폭격기가 용단 폭격으로 인민군을 전멸시켜 아킬레스건을 끊었으며, 30일 후에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졌는데, 끊어진 왜관철교와 낙동강이 천연 요새 역할을 하여 6·25전쟁의 전세가 대역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동창회 후배 동문들이 이러한 내력이 있는 내 고향까지 쉽지 않은 장거리 라이딩을 했다니 감회가 새롭다.

한겨울 등산에서 눈길을 앞장서 열어 가는 행위를 ‘러셀(russel)’이라고 한다.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라이딩 입문 5개월차 초보 라이더에게 낙동강 종주 자전거 길 안동댐~낙동강 하굿둑 389km 완주의 영광을 가져다준 나의 세렌디피티 총동창회 선배님과 라이딩 동호회 회원 여러분의 러셀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 ‘돌아온 청춘’, 환갑 기념 남미 여행



한경표 · 27기

### 행복하려면 여행을 자주 떠나라!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지구촌(Global)이라는 단어는 이미 구시대 유물이 된 지 오래다.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를 마치 이웃을 오가듯이 여행하고 서로 교류하며, SNS를 통해서 해외의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대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차원의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2018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이후에도 30~40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 특히 우리와 같이 전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느라 바쁘게만 살아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 내부에 틀에 박힌 경직된 사고와 편견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앞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장인 최인철 교수는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은 여행이다. 행복하려면 여행을 자주 떠나라. 여행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모든 활동, 즉 먹고, 놀고, 대화하고, 즐기는 모든 행위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행복의 뷔페이며, 행복의 종합선물세트이다”라고 말했다.

여행을 통하여 대자연의 광활한 품에 안겨서 마음껏 호연지기를 다지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세상에 집착했던 현실적 자아를 내려

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유난히 힘들고 가난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는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위로를 받고, 미래를 위한 심신의 힐링을 즐기는 나만의 여행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여행의 이유이자 목적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여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오래전부터 여행 중에 어떤 곳에 가면 마치 천국에 온 듯한 전율을 느끼는 행복감을 체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나는 이것을 ‘여행복’=‘여행×행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여행의 ‘Travel’과 영혼의 행복을 의미하는 ‘Bliss’가 합성된 ‘Traveliss’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영어사전에는 없는 단어이다. 여기에서 ‘여행복’을 ‘여행×행복’으로 표현한 것은, 단순히 여행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행복이 서로 승수 작용을 하여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것을 바로 ‘여행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영어의 ‘Bliss’는 생활의 만족한 상태나 기쁜 감정에서 생기는 행복한 마음을 뜻하는 ‘Happiness’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이다. 그리고 지금껏 느껴 보지 못한 경이로운 자연을 접할 때 밀려오는 특별한 감동과 놀라움에서 신체적으로 전율을 느끼는 상태, 즉 의식과 영혼이 행복한 최고의 행복감을 말한다.

따라서 ‘여행복’을 느끼는 순간, 인간이 평소 행복할 때 생성되는 호르몬인 엔돌핀(Endolphin)보다 약 400배의 효과가 있다는 다이돌핀(Didolphin)이 생성되어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은 단지 세상의 새로운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고 외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는 삶의 문제인 것이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에 두고, 나만의 여





행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선정하고, 나만의 여행 계획을 세우며,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설계하여 그 방식대로 실행하는 것이 ‘여행복’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다. 진정한 여행가는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안다.

### 마지막 여행지, 남미 여행

나는 해외여행을 떠날 때마다 늘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여행 버킷리스트 1번이 잉카의 땅, 남미를 꼭 한번 가보는 것이었는데도 여행을 결정할 때마다 뒤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여행자들에게 ‘마지막 여행지’라고 불리는 남미는 시간과 비용,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혼자 훌쩍 떠나기도 어렵고 여러 명이 함께 가기도 만만치 않은 여행지라서 좀처럼 떠나기 쉽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나는 만 60세가 되는 해에 환갑 기념으로 무조건 남미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공군사관학교 동기생이자 절친한 친구인 다섯 쌍의 부부(10명)를 동반자로 하는 남미 여행팀을 결성하고, 팀 이름을 ‘돌청’, 즉 ‘돌아온 청춘’이라고 정했다. 그리고는 매달 적정 회비를 거둬서 여행비를 마련하고, 정기모임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전국 휴양림을 찾아 산행이나 야영을 하면서 어려운 남미의 환경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견뎌 낼 수 있는 팀워크를 기르는 여행 연습을 꾸준히 하였다.

심지어 남미 페루와 볼리비아 등 안데스산맥 고산지대를 여행하는데 대비하고 남부 파타고니아 Patagonia 지역의 장거리 트레킹 여행에 적응하기 위한 사전 실습 여행으로 중국 윈난성雲南省으로 트레킹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다. 윈난성은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차마고도가 시작되는 곳으로, 해발고도 5,596m의 위룽설산 등 5,000m가 넘는 고봉들이 많아서 남미 지역과 환경이 비슷한 고산지대에 적응하기 위한 여행지로 가장 적합한 곳이다.

남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른 여행지보다 좀 더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3년이 넘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한 달여 여행 기간에도 무난히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여행 비용을 마련하였고, 팀워크를 비롯해 정신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만큼 철저한 여행 준비를 하였다.

남미 여행을 위한 준비물은 여느 해외여행과는 다르게 환경이 열악한 오지나 고산지대를 방문하고, 파타고니아 지역 트레킹 때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날씨에 모두 대비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였다. 특히 시니어들은 개인적인 건강 상태나 체력의 편차가 커서 개별적으로 의약품과 보조식품 등의 철저한 준비도 하였다.

또한 지형적인 특성과 기후 조건뿐만 아니라, 음식과 풍토병(황열병) 등에 대비한 위생 문제도 점검하였다. 아울러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의 트레킹에 대비한 복장과 안전사항 등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였다.

여행 계획은 전체적인 여행 경로와 방문국(페루·볼리비아·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 등 5개국), 그리고 각 여행지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남미 지도에 이동 수단별로 노선을 구분하여 식별하기 쉽게 작성하였다.

###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오다~!

2018년 1월 25일, 드디어 우리는 ‘돌청, 세계로 날다Vuela al Mundo!’라는 현수막을 기치로 남미여행의 대장정을 향한 결단식을 하고 장도에 올랐다.

이번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동안 일부 회원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팀원에 변화가 생기고, 불가피하게 결행 시기를 1년 늦추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코 남미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붙잡아 놓을



‘돌청’ 남미여행 계획과 이동 경로

### ‘돌청’ 남미 여행 계획(개요)

기간 2018.1.25~2.20(27일)

방문국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5개국

경로 인천→LA(미국)→리마(페루)→쿠스코→성스러운 계곡→마추픽추→푸노→티티카카 호수→라파즈 (볼리비아)→우유니 소금사막→아타카마 사막→산티아고(칠레)→푸에르토나탈레스→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W트레킹→엘 칼라파테(아르헨티나)→페리토 모레노 빙하→엘찰텐→피츠로이 트레킹→세로또레 트레킹→엘 칼라파테→부에노스아이레스→이과수폭포→포스두이과수(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런던(영국)→인천

예산 약 1,500만 원/1인

수는 없었다. 우리들의 가슴은 온통 벽찬 감동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환갑이 지나서 가까운 관광지나 온천 같은 휴양지를 찾아가야 어울릴 것 같은 나이에 멀고도 험한 남미를 한 달간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걱정 섞인 염려를 하였다. 반면에 어떤 이는 그 나이에 다섯 명의 친구들이 부부동반으로 남미 여행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멋지다면서 부럽다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남미 여행은 페루의 쿠스코와 마추픽추, 티티카카 호수,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 칠레의 토레스 델 파이네 ‘W’ 트레킹, 아르헨티나의 페리토 모레노 빙하와 피츠로이/세로또레 트레킹,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와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을 둘러보는 환상의 코스였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느껴 보지 못했던 최고의 감동을 맛보았으며, ‘여행복’을 느끼는 영혼의 여정이었다.

우리는 마침내 영국 런던을 거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27일 만에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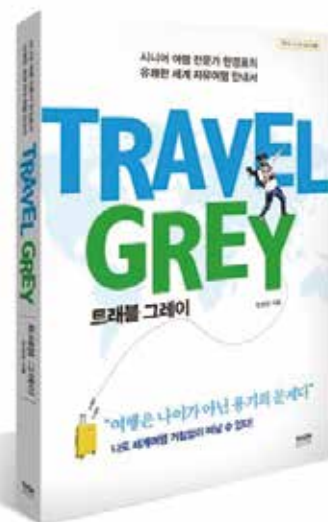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의 피츠로이 트레킹 중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다. 회원들 모두가 30년 이상 군 생활을 한 직업군인으로서 지금껏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모처럼 환갑을 맞이하여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전우애로 똘똘 뭉친 동기생 부부 10명이 남미 대륙을 횡단한 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각자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며, 또한 이 어려운 여행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건강과 가정을 잘 돌보고 가꾸어 온 부인과 자신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그간의 여행 경험을 토대로 『트래블 그레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고를 바라며, 각자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행복을 추구해 가는 풍성한 삶이 되길 바란다.

남미 여행 경험담을 쓴 책  
『트래블 그레이』 표지





## 유익한 항공 여행 정보



은진기 • 26기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인천공항은 이제 비수기가 없는, 상시 성수기를 맞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해외여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항에서 25년을 근무한 내공으로 항공기 탑승 시 가장 안전하게 여행하는 법,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우대받을 수 있는 TIP을 드리고자 한다.

### 안전한 항공기 여행

항공기는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인 만큼 최고의 안전을 담보로 설계, 발전되어 왔고, 실제로 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가장 안전한 이동 수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항공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는 실정이다. 특히, 연료를 가득 싣고 최대 중량으로 이륙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항공기 결함 시나, 고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착륙을 위한 접근 시가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를 개시한 후의 3분간과, 공항 진입에서 착륙할 때까지의 8분을 합친 11분 동안을 사고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라는 의미로 ‘마의 11분 Critical 11 minutes’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승객들은 물론 모든 승무원이 항상 착석하여 안전벨트를 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순항 중 위험한 기상 요인은 ‘적란운’이라고 불리는 수직으로 발달한 커다란 비구름과, 공기의 흐름이 일정치 않은 ‘난기류 Turbulent’라고 볼 수 있다. 적란운은 비와 우박을 포함하고 있는 여름에 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름으로, 만약 그 구름에 진입 시 엄청난 흔들림과 우박 등으로 인해 항공기 기체에 큰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기장은 항공기 내에 장착되어 있는 기상 레이더로 미리 인지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회피하는 비행을 시도한다. 하지만 관제상 간혹 회피하지 못할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에 적란운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을 켜서 항공기의 흔들림에 대비토록 조치하고 있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구름과 동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관측되지만,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에 생기는 청천난기류(Clear Air Turbulence) 같은 경우는 레이더로도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갑자기 항공기가 흔들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고약한 공기 흐름은 에어 포켓(Air Pocket)이다. 이는 항공기의 양력이 감소되는 하강 기류의 구역으로, 항공기가 이 구역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낙하하거나 심하게 요동치게 된다. 이는 지상의 싱크홀과 비슷한 것으로, 갑자기 항공기가 똑 강하하여 움직이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이 천장까지 튀어 올랐다가 낙하하며 부상당할 수 있는 공기 흐름이다. 이런 경우는 기장이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안전벨트 표시등을 미리 켜기가 쉽지 않아 그 순간 움직이고 있던 승객들은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도 전혀 문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대책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다. 화장실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에 앉을 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항공 여행에서 최선의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이다. 이착륙 시뿐만 아니라 순항 중에도 난기류에 의한 부상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난기류 사고에



서도 부상당하지 않은 승객은 안전벨트를 매고 착석하고 있었던 승객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여행지에서 시차 장애를 최소화하는 법

해외여행에서 시차는 여행자를 무기력하게 하고, 여행의 흥미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1960~70년대 한국에서 복싱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을 때, 해외로 원정 가는 복서들은 여지없이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다 패배를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원정지에서 체류 경비를 줄이려고 현지 적응 기간을 짧게 운영하다 보니 시차를 극복하지 못해 마치 한밤중에 시합을 하는 것 같은 경우가 되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손흥민같이 뛰어난 선수도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이다가도, 한국의 A매치나 국제 시합에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시차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시차 장애로 발생하는 증상은 불면증, 낮 동안의 심한 졸음, 피로감, 집중력 저하, 전반적인 불쾌감, 두통, 위장장애 등이다. 생리학자들은 한 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걸린다고 한다. 만약 런던같이 9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곳이면 9일 정도가 지나야 그곳의 시차에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생리학자들은 해외의 시차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차 발생 시간의 날짜 전부터 그곳의 시차에 맞춰 생활하라는 조언을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쪽(미주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와 서쪽(유럽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적응하는 점에서 차이를 많이 느낀다. 동쪽으로 갈 때는 도착해서 잠을 이루기 매우 어렵고, 귀국해서는 오히려 적응하기가 수월한 반면, 서쪽으로 갈 때는 현지에서 수면을 하기는 수월하지만 귀국해서는 한동안 새벽에 여지없이 잠에서 깨는 불편함을 느낀다. 이는 시차의 늦음과 이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길지 않은 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자의 경우, 항공기 내에서 나뭇 시차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현지 도착 시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착을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 한다면, 내리기 전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내려서 현지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기내에서 술을 약간 마시면 수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양의 술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여객기 안은 외부와 비슷한 수준의 여압이 작동되지만, 그래도 한라산 정상 수준의 기압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나친 술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저녁 시간대에 내린다면, 미리 한숨 자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 몸을 약간 피곤하게 만들어 숙소에 도착한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차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우대받는 방법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것이다.

먼저 승무원들은 승객과 최근접 거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듯이, 승무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종업원 대하듯 하면 기본적인 서비스만 받게 될 것이며, 교양인으로 인정받기도 힘들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관심을 표하는 것도 그들을 불편하게 한다. 간혹 해외여행이 익숙지 않은 연장자들이 며느리 삼췌다고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등의 일탈 행위도 하지만, 이 정도는 그들에게 농담으로 치부된다.

특히 비즈니스석 등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는 간식으로 라면이나 샌드위치 등을 요청할 수도 있고, 샴페인이나 와인 등을 추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뭇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대만에서의 필자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승무원들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각기 직급이 있다. 승무원(Stewardess), 선임승무원(Senior Stewardess), 부사무장(대리급, Assistant Purser), 사무장(과장급, Purser), 선임사무장(차장급, Senior Purser), 수석사무장(부장급, Chief Purser) 등으로 구분된다.

직급 승진은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당연히 성실성과 근태 관계, 회사에 대한 로열티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 비중은 작지만 승객들에게서 받은 ‘칭송 레터’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자발적으로 승객이 승무원에게 받은 서비스에 감동하거나, 특별하고 복잡한 일을 잘 해결해 주었을 때 감사의 표시로 편지 형태로 작성, 제출하여 승무원을 칭송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안타깝

게도 이 내용을 승객들에게 전파하여 양성화하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내부 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잘 모르고 있다.

먼저 칭찬하고 싶은 승무원이 있으면 ‘칭송 레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 보자. 칭송 레터를 알고 가져다 달라고 얘기하면 벌써 여행자의 내공을 인지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육하원칙에 의거, 칭송 레터를 작성하고 다시 돌려주면 그때부터 그 승무원은 해당 여행자에 대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외국 항공사에도 ‘Praise Letter’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나름대로 우대를 받으며 여행할 수 있다.

해외 여행객 3천만 명 시대에 안전하고 즐거우며 기분 좋은 여행에 대한 정보가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민항기장의 입장에서 본 정보를 함축해 보았다. 알고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만 원이 준 행복

### 복덩이 아이들

세상이 변했는지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애 낳는 걸 싫어한다.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독신주의로 살겠다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이 낳기를 꺼리는 잘못된 풍조가 유행처럼 되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 사정과 취업난이 어렵긴 하지만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겠다고 여러 핑계를 댈다. 나는 이것이 어려움과 부족함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들이 경쟁을 두려워하며 편안함만 추구하겠다는 짧은 생각으로, 한마디로 의무와 책임은 포기한 채 권리만 취하면서 그저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현대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올해 결혼 생활 12년차인 주부 소박한 씨는 7남매의 아이를 낳았다. 보통 당찬 여성이 아니다. 다행히 아이를 임신해도 입덧이 적고 산고가 심하지 않아 해산의 고통 없이 낳았다. 마음씨 후덕한 이웃 사람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게 재산이고 복덩이라고 부러워하며 소박한 씨가 나라에 애국한다고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한 자식만 낳아서 기르겠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장한 일을 하셨어요. 댁은 무슨 복이 있어 아이들을 럭키세븐 7남매나 두었을까요?”

개중에는 남 홍보기 좋아하는 심술궂은 여자들이 뒤에서 쑥덕거렸다.

“개나 돼지 새끼를 낳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짐승처럼 아이를 일곱 명씩이나 낳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미련한 짓이지요. 여자가 좀 밝히게 생겼잖아요.”



박창용 · 19기



그런 여자들은 분명히 뺨덕어멈처럼 심성이 고약하거나 입이 비뚤어졌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흥을 본다. 남 잘 되는 걸 그냥 순수하게 보아주질 않는다. 그래도 감싸 주는 이웃들이 많아서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퍼뜨리는 여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기도 했다.

“말이 좀 심하시네. 똥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송을 떠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송을 떨었다고 그러세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겠다고, 밝히는 게 아니라 부부 글습이 좋은 거죠. 공연히 부러우니까 삐딱하게 말을 하네.”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 키우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했어요.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부부간에 섹스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덕은 부부관계를 싫어하나 보죠?”

“아니 그야 뭐, 아주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소박한 씨는 거의 1~2년차로 낳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한가롭게 설 틈이 없었다. 젓 달라고 보채는 갓난아기부터 고만고만한 아이들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 보면 편히 영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새가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육아에 매달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인간이 모두 똑같은 인간이 아니듯, 인간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바른말이 아니다. 사람은 예쁜 말, 긍정적인 말, 거짓 없이 진정으로 하는 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칭찬하는 따뜻한 말을 하며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말로 주는 보시가 된다. 듣기 좋은 말은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준다. 말에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마력이 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

긍정의 힘은 위대하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극복하여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일상의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덩달아 행복해진다.

같은 뜻의 말을 하더라도 악담하고 폄훼하며 비난하고 휘방을 놓으려 하지 말고, 선한 뜻으로 말을 하여 말로 주는 보시를 베풀어 보자.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진심을 주면 이웃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자신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 현모양처

교육은 인간의 가치 있는 미래를 열어 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다. 가정에서 중요한 사회성을 배우고 스스로 제 몫을 하도록 해야 한다.

소박한 씨는 어릴 적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역할 분담을 가르치고 의무와 책임감을 길러 주었다. 사랑의 매를 야기하면 아이들이 병들거나 연약하게 자란다. 때로는 아이들을 엄히 키우고 저마다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자립심을 심어 주었다. 신통하게도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며 할일을 익히고 배워 나가 그녀의 가사 부담을 덜어 주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큰 탈 없이 자랐다. 제 먹을 복은 타고난다더니 귀여운 아이들 키우는 게 힘은 들어도 복덩어리였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동네에서는 소박한 씨 집이 제일 다복한 가정이라며 부러워하는 이들이 늘어 갔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효부로 소문이 나 있다. 일찍 아내를 잃고 홀로 되신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셨다. 사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지만 정성을 다하여 친부모님 이상으로 모셨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밖에 모르는 남편의 사랑이 보통이 아니어서





부부애가 깊었다. 남편의 봉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여 소박한 씨도 무언가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어렵다. 고사리처럼 쭉쭉 자라나는 아이들 키우며 뒷바라지하기도 바쁘기 때문이다. 그래도 재롱떠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가정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다. 가진 건 적어도 걱정할 일이 없었다.

남편 강직한 씨는 없는 집에 시집와서 아이들 키우며 고생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피로에 지친 아내의 손에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살며시 쥐여 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신권이였다.

“요즘 당신 모습이 힘들어 보여요. 시장에 가거든 당신 좋아하는 순대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힘을 내세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나 힘들지 않아요. 아버님 건강하시고 콩나물같이 쭉쭉 자라는 우리 아이들 보기만 하여도 힘이 절로 솟는 걸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당신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당신이 건강해서 힘을 내야 우리 가정이 편안해져요.”

“밖에서 고된 일 하시는 당신이 힘들지, 집에 있는 내가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당신 눈가에 잔주름이 늘어난 것 몰라요? 내가 시키는 대로 오늘은 아이들 걱정은 잠깐 잊고서 순대국밥 한 그릇 꼭 먹고 오세요.”

남편은 사양하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에 기어코 만 원짜리 한 장을 쥐여 주었다. 아내는 끄적어도 자신을 위해 주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솟았다. 행복이 뭐 별거든가?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고 위해 주면 가정이 화목해지면서 따뜻한 온기가 넘치지 않겠는가? 살림이 넉넉지는 않아도 부부 금슬이 좋고 오가는 말마다 진정이 담겨 있으니 가정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서 행복이 흘러넘쳤다.

## 며느리 자랑

며칠 뒤 아침부터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소박한 씨는 노인정에 나가시는 시아버지 강성해 씨에게 말했다.

“아버님, 요즘 날씨가 무더워서 노인정에서 소일하시기 힘들지요?”

“아이들 키우며 집안일 하는 네가 덥지, 나야 천국에 사는 기분이란다.”

“살림에 여유가 생기면 아버님 방에 제일 먼저 에어컨을 설치할게요. 조금만 더 참고 지내세요.”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늙으면 찬바람도 싫은 법이야. 노인정에는 선풍기도 돌아가고 장기 한 판 두다 보면 더위는 금방 잊고 산단다.”

“아버님, 제가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얼마 안 되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어른들과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서 드세요.”

“아니라니가 그러는구나. 지난번에 네가 준 용돈이 아직도 남아 있는걸.”

“아버님, 그걸 드린 게 언젠데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러세요. 용돈이 너무 적다고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땀날 먹고 노는 늙은이가 용돈이 무슨 소용 있겠니? 그러지 말고 애기 너나 필요한 데 쓰려무나.”

“그리고 오늘 점심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시원한 콩국수를 해드릴게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오세요.”

“더운 날씨에 힘들게 콩국수를 하려고 하느냐? 글썄 최 영감 고집이 어지간해야지.”

“왜요? 아버님 다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최 영감이 장기를 지면 놓아 주지를 앓아서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 영감 승부욕이 대단하거든.”

“그럼 아버님, 오늘은 슬쩍 한 판을 쳐주세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먼. 어디 오늘은 최 영감 기분을 한번 맞춰줄까?”



강성해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을 알고 있는 터라 며느리가 주는 용돈을 극구 사양했지만 소박한 씨는 남편한테서 받은 만 원을 억지로 시아버지께 드렸다. 그날 강성해 씨는 노인정에 가서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며느리라며 신바람이 나서 또 자랑을 했다. 소박한 씨는 동네에서 이미 효부로 소문이 나 있어서 노인들은 모두 강성해 씨를 부러워했다.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흔하겠어요? 강 영감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알 만해요.”

“강 형은 늘그막에 복이 터져서 신수가 흰하다니까. 부모님 잘 모시는 것도 모자라 때맞춰 용돈까지 챙겨 주고 있으니 정말 부럽소.”

“손자 손녀를 일곱 명씩이나 낳아 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시아버지 모시는 마음이 지극하니 그런 며느리는 업어 쥐도 시원찮을 거예요.”

그럴 때면 강성해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한다.

“다른 집 며느리는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친딸보다 나아요.”

모두들 덕담을 나누며 한바탕 껄껄대며 웃었다. 강성해 씨는 며느리가 준 용돈을 쓰지 않고 지갑 속에 고이 간직했다.

### 잘 되는 집안

얼마 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교육감이 주는 상장과 상품을 안고 돌아왔다. 손자가 글 쓰는 재주가 남달라서 학교 대표로 도내 어린이 글짓기 대회 백일장에 나가 장원을 했다고 한다. 강성해 씨는 자랑스러운 손자를 살며시 불러 칭찬을 해주었다.

“똥똥이 내 손자 병훈아, 어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굴 좀 다시 보자. 네가 도내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장원을 하다니 정말 장하구나.”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생겼어요?”

“그럼, 할아버지를 닮은 병훈이는 미남 중에 미남이지. 인물이 흰해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을 거야!”

“할아버지,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인기가 조금 있긴 해요.”

“조금이 아니라 제일 많겠지? 병훈이는 글 쓰는 솜씨가 특출한 모양이야. 이 돈으로 필요한 학용품을 사서 글짓기 연습을 하려무나.”

강성해 씨는 손자를 칭찬해 주면서 며느리가 준 만 원에다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던 만 원을 더해 2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다.

“제가 할아버지 글 쓰는 솜씨를 닮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글 쓰는 법을 알려 주신 대로 쓰니까 글이 잘 써져요.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오냐, 글을 자주 쓰는 습관을 들이면 더 잘 쓸 수가 있단다. 계속 연습해서 다음에 훌륭한 작가가 되어 보렴.”

“앞으로 열심히 글쓰기 연습을 해서 전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은 병훈이는 신바람이 나서 곧장 엄마한테 달려갔다.

“엄마, 할아버지께서 장원을 했다고 용돈을 주셨어요. 엄마가 간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주세요.”

“병훈아,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은 도로 갖다 드려라.”

“왜요, 엄마?”

“엄마가 주신 용돈이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하고 할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쓰시라고 말씀드려라.”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훌륭한 작가가 되려면 글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하시며 필요한 학用品을 사라고 억지로 주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용돈을 받고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신다고 냉큼 받아서는 안 돼.”

“엄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병훈이는 엄마 손에 돈 2만 원을 다시 쥐여 주었다.

순간 소박한 씨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피로에 지친 남편이 퇴근 후에 코피를 쏟았다. 남편은 잦은 야근 때문이라고 했지만 요즘 무척 힘들어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날 아침 소박한 씨는 봉투 속에 2만 원을 넣어서 출근하는 남편의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여보, 오늘은 도시락을 싸지 않았어요. 대신 점심시간에 이걸로 맛있는 것 사 드세요.”

봉투 속에서 2만 원을 발견한 강직

한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거 지난번에 내가 준 그 만 원이잖아? 어느새 새끼를 쳐서 돌아왔네. 오늘은 내가 특별 보너스를 받아서 횡재를 했구먼.”

“그래요. 다리가 달린 만 원짜리 한 장이 가족들 손을 거치면서 배로 늘어나 다시 당신 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당신이 쓰세요.”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쫓다 뺏으면 엉덩이에 소나무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찌면 좋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 엉덩이에 소나무가 나도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소나무가 나도 싫어하면 안 돼요?”

“당신 엉덩이에 소나무가 나기만 해봐라, 힘 좋은 내가 쪽 뽑아주고 말 거야.”

“그럼 나를 내쫓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 집 기둥인데 그럼 기둥뿌리를 뽑으란 말이에요?”

부부는 아침부터 집 안이 떠나갈 듯 기분 좋게 한바탕 웃었다. 이게 바로 복 받는 집의 모습이다.

잘 되는 집안은 뭔가 다르다. 서로가 먼저 챙겨 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 화목이 자라나서 웃음꽃이 피어난다. 하찮은 일이라도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허물은 자기 탓으로 여긴다. 자신의 잘못을 결코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럼 다툼 일이 없어지리라. 가진 게 적어도 나눌 줄을 알고 베풀 줄을 알게 된다. 행복이 어디 돈이 많고 부자라야 따라온다던가?

그것 참 신기한 일이다. 만 원짜리 한 장이 가족들 손을 거치면서 배로 커졌다. 그리고는 가족들의 기분을 돋워 주고, 거기다가 넘치는 기쁨을 만들어 주며 화합을 도모하더니 어느새 가정을 행복으로 꽉 차게 해주었다. 돈 만 원은 들고 돌아 가정에 넉넉한 행복을 듬뿍 선사한 것이다. 행복은 이렇게 자신이 만드는 것인가 보다.

돈을 많이 갖고 재물의 가치가 커야만 마음이 편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건 아니다. 또 행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인생을 살아 볼수록 절실히 느끼게 된다. 늘 가족을 애뜻하게 생각하고, 친구를 따듯하게 돌아보고 또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밝아지리라.

어떤 선한 행동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안겨 주지는 않겠지만, 착한 마음을 담아서 무언가 해주려는 실천이 따르면 행복이란 저절로 찾아온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값진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지진 경험



송기준 · 25기

### 열대성 뭉게구름 피해 세부 공항에 도착

달빛도 자취를 감춘 깜깜한 그믐밤, 별들만이 긴 활주로의 실루엣을 나타내고자 애써 보지만 인조 조명의 현란함에 스스로 그 빛을 거두어 버린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가족들과 오순도순할 시간에 최신의 에어버스 한 대가 김해 비행장 한쪽 끝에서 도움닫기를 하여 튀어 오르듯 굉음과 파란 불꽃을 뿜어내고 요동을 치며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오늘따라 청명하고 부는 바람 순탄하여 단숨에 하늘하늘해지며 지구를 굽어본다. 위에도 별, 아래도 별,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고기잡이배들이 밝힌 불들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별들보다는 작지만 야밤에 고기 잡는 배들이 남해에서 시작하여 제주도와 이어도를 지나 대만의 북동 해역과, 일본 유신 시대부터 줄곧 괴롭힘을 당하고 드디어 메이지 시대에 병합이 된 지금은 오키나와라 불리는 류큐공화국까지 총총히 바다에 수를 놓는다. 이리다 물고기 씨가 마르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되기도 한다. 기수를 남으로 남으로 향하게 하고 류큐공화국을 뒤로하니 망망대해 태평양상에 들어선다. 수평선 남쪽 끝자락에 십자군의 방패 전면에 새겨진 십자가 모양의 남십자성이 떠오른다.

남십자성의 4개의 별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한 개의 희미한 별이 호주 국기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북반구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별나라 이야기다. 북위 20도를 남으로 지나야 서서히 남쪽 하늘에 일부를 드러내고 북위 15도 이하의 적도 근처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별이기 때문이다.

과거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던 병사들이 남쪽 하늘을 보면 북반구의 북두칠성처럼 어렴풋이 수평선에서 볼 수 있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던 별이기도 하다. 이와는 반대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오면 적도 가까이 와야 북두칠성이 아득히 수평선에서 올라온다.

상당히 지루해질 참에 적도가 가까워지면서 남위도의 특성인 뭉게구름(Thunder storm)이 레이더 이곳저곳에 잡힌다. 비행기 고도 1만 1,000미터를 넘어 올라온 열대성 뭉게구름이 곳곳에 북병처럼 늘어서 있다. 저곳에 들어가면 얼음 덩어리에 두드러맞고 난기류에 휩싸이기 때문에 절대 스치기라도 하면 아니 된다. 요리조리 곡예 비행하듯 열대성 뭉게구름을 피하면서 한 시간가량 비행하면 멀리 섬나라 필리핀의 아스라한 밤 등불이 맞이한다.

세부 공항에 도착하여 이민국과 세관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가니 열대 특유의 습하고 높은 기온의 공기가 한껏 다가온다. 19층 호텔 방에 들어가니 새벽 2시 반, 몸 씻고 스포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 가면서 잠을 청하니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잠이 든다. 희미하게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잠을 깨니 아침 여섯 시다. 이젠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이른 새벽이나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한동안 잠이 오지 않으니 노인성 코드다.

### 갑자기 건물이 좌우로 흔들흔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일찍 아침을 먹고 나서 방에 들어와 텔레비전을 틀어 보니 FOX 스포츠에서 생방송 중계를 하고 있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류현진의 야구 경기를 즐감하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가 흔들리더니 건물 전체가 마치 어린아이 요람 흔들리듯 좌우로 주욱-주욱 흔들거렸다. 그네를 타는 듯 좌우 진폭이 1미터 정도는 되었고, 끼익-깅 소리가 나면서 상하 대각선 쪽으로도 흔들렸다. 나는 저 ㄷ강도의 지진 경험이 일본 도쿄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호텔에 머무를 때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들

계속 침대에 있었다.

그러나 보통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지진이 끝나는데 오늘은 멈추질 않고 더욱더 진동이 심해져서 이리다 호텔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등글듯 일어나 재빨리 침대 옆 책상 밑으로 들어가 베개를 머리에 이고 쪼그려 엎드려 호텔이 무너져 잔해가 덮쳐 오더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였다. 진동은 리듬까지 생기면서 엇갈림과 흔들림에 의한 불협화음이 끼이익 끼이익 계속 들려왔다. 조금만 더 넘어가면 건물이 딱 부러질 것만 같았다.

화장실에서는 난리가 났다. ‘쿵’, ‘꽝’, ‘쨍그랑’거리면서 뭔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 유리컵 깨지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진동과 맞물려 불협화음처럼 들려왔고, 벽에 붙어 있던 조그마한 그림이 좌우상하 회전을 하더니 아래로 똑 떨어졌다.

본 지진이 끝난 후 창밖으로 보이는 세부 시내를 살펴보았다. 혹시나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는 건물이 있는지, 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물이 있는지 훑어보았지만 그런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내 방은 삼면이 터져 있어 세부 전 시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다.

이번에는 여유 있게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를 하여 “지진이 끝난 것 같은데 내 방에 여러 집기가 떨어지고 타일과 유리컵, 거울 등이 깨졌으니 그것을 치워 달라”고 하였다. 여직원이 이 소리를 듣더니 놀라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대피하라”면서 “바쁘니 전화를 끊겠다”고 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층 로비의 대형 샵들리가 떨어져 박살이 나는 바람에 모든 직원이 혼비백산하여 대피를 하였다고 한다.



나는 지진의 성질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여 천천히 대피하려고 아직도 혼자 지지직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빨리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각 층마다 여러 안내원이 대피를 지시하고 있어 할 수 없이 방을 나와 계단을 통해 호텔 앞마당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폐쇄되었던 것이다.

계단 여러 군데 벽돌로 쌓아 놓은 곳에 금이 간 것이 보였으나 무너진 곳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대부분 자다가 나왔기 때문에 가운데만 걸쳤거나 천으로 만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수천 명이 아무렇게나 대피하고 있어 우리 일행(승무원)이 어디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한두 시간 후에야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일행을 만날 수 있었다.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 없어 본사에 상황을 전달할 방법을 걱정하던 차에 다행히 여승무원 한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회사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 에어라인 승무원 6명은 지점과 연락을 하며 대피·휴식·식사 등 모든 행동을 같이했다.

세부 시내는 지진으로 인해 대부분의 상점이 철시를 하여 문을 열지 않았다.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들도 놀라서 여진이 있을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남쪽으로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보올 섬에서 발생한 지진이고, 강도는 7.2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곳 세부에서는 고층 빌딩과 중간 건물들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 큰 건물이 무너져 내린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다만 공



지진이 일어난 세부 일대 지도



항으로 가는 큰길에 이재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수십 명 길거리에 거적을 깔고 나앉아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필리핀 당국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220여 명의 사람들이 떨어지거나 날아다니는 파편에 맞아 숨지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1800년 초에 지어진 성당 건물이 무너진 것이 최대의 건물 붕괴였다.

### 본진 끝났을 때 서두르지 않고 대피하는 것이 최선

나는 로스앤젤레스나 도쿄에 있을 때 건물이 흔들거릴 정도의 강도 3~5 사이의 지진을 자주 경험하였다.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즉시 대피하고, 고층 건물이면 대피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책상 밑이나 큰 기둥 아래 등, 무너질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생존 가능성이 높다. 지진이 나서 건물이 흔들거릴 때 피한다고 복도로 나가거나 비상 계단에 있다가는 공황 심리에 사로잡혀 우왕좌왕 대피하는 사람들에 치여 다치거나 건물 파편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진이 끝났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대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 일행과 서로 통신선 안에 있도록 가능하면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대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신의 조화를 인간이 나서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던가? 멀리 서서 구경하고 미리 피하는 것이 신을 이해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 소주 두 잔

### 왜 술을 마시는가?

나의 주량은 소주 두 잔. 이 한계를 넘어가면 온몸이 벌렁게 달아오르고 이내 졸리다가 나중에는 두통이 온다. 밤잠을 설치는 후유증도 겪어야 한다. 남들이 소주 두 병을 마셨을 때의 증상보다 더 심하니 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체질을 타고났다고 할 수도 있겠다. 예전에 어느 상관은 말했다. “너처럼 술을 마셨으면 지금까지 절약한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하고도 남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분에게 되묻고 싶다. 두 잔만 마신다고 두 잔 값만 내게 한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소주 두 잔의 주량으로 한 시절을 버텨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을지 상상해 보았느냐고.

술로 인해 얽히고설킨 이야기는 술을 즐겨 마시고 두주불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술자리에서 소주 한 잔에 해롱해롱하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술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어쨌거나 술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더 다사다난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문하게 되는 것은 ‘왜 술을 마시느냐?’이다. 술을 자주 마시는, 아니 마셔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켜본 관점에서의 그 이유란 것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뉴욕타임스』 기자가 영국의 탐험가이자 산악인이었던 조지 멜러리에게 “왜 산에 오르느냐”고 물었다. 쉬우면서도 의



이두희 • 29기



미심장한 그 질문에 대해 멜러리가 말한 답은 의외였다.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 핵심을 찌르는 이 간단명료한 말은 결국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명언 중의 명언이 되었다. 또한 이 명언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술을 마시느냐?’에 대한 답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거기에 술이 있기 때문.”

### 술과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

우리들이 술과 마주하는 습관도 등산과 많이 닮아 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 산중턱에서 그만두는 경우는 몸에 이상 징후가 오거나 악천후가 시작되지 않는 한 거의 없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한번 시작했다면 꼭 정상까지 가려는 듯이 도전적으로 술을 마신다. ‘반주로 딱 한 잔’이란 말, 99퍼센트 거짓말이다.

가끔 술을 통해 자신의 체력을 과시하고 정복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사람도 있다. 그에게 술에 대한 기억은 수많은 산을 정복한 기록처럼 상대를 굴복시킨 전사戰史로 가득 차 있다.

술을 마시는 이유 중 등산과 유사한 점은 또 있다. 중독성이다. 높은 산에 오르며 고통스러울 때엔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 싶을 때가 많다.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동상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잃은 산악인도 많다. 고통이 엄습할 때는 이제 다시는 등산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2년만 지나면 발바닥이 근질근질해진다. 술도 똑같다. 폭음으로 인한 인과는 늘 고통이 뒤따른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취중 실수로 인해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 앞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술을 마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슬픈 이유는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경우이다. 술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재를 잊어야 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술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좇아야 할 때도 슬픈 이유에 속한다.

사실 소주 두 잔의 주량으로 술자리마다 쫓아다닌 이유도 술좌석을 통해 형성되는 울타리 안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다. 함께 한바탕 거니하게 취하고 나면 아군이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될 수 있지만 술잔을 받아두고 주저하거나 일찍 술자리에서 사라지면 결코 의리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만 전우가 될 수 있었다.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요즘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술자리에 나를 부르는 일이 잦아졌다. 술좌석에서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반복적 대화를 통해 아군이 될 수 있다고 믿던 친구들이 술을 잘 못 먹는 나를 술친구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자기주장만 하는 억센 친구들을 적당히 중재도 하고, 술자리가 끝나면 차에 태워 각자의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술친구 한 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옛 속담에 술과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가 다가오나 보다.







## 부모님의 손



정익길 · 30기

### 부모님의 내리사랑

삶이란 무엇일까?

언어적으로는 삶과 죽음의 차이는 단순하다.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 있음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음이 되는 것이다. 결국 삶이란 들숨과 날숨의 과정인 것이다.

나의 부모님은 열아홉과 열일곱의 나이로 결혼하여 팔십 년을 해로하시다 아버지는 2018년 4월에 99세로, 어머니는 2019년 4월에 98세로 각각 세상을 떠나셨다. 과거에는 조혼 풍습으로 인하여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해로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결혼 평균 연령이 30세로 80년을 해로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병원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가 89세 때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일주일간 밤낮으로 병간호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허공을 보시면서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하신 적이 있다. 나는 허공에 주먹질을 하면서 ‘아직 아버지께서는 저승으로 가실 때가 아니니 돌아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는 10년을 더 사셨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맞은편 아파트 창문 속에 표범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희한하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요양원에서 생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양원의 천장 무늬를 보시고는 “별레가 꿈틀거린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현상들은 두 분의 연세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나는 두 분께서 연세가 점점 많아지심에 따라 시간이 허락하는 데

로 자주 얼굴을 보여 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 생각하여 주말이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밖에 다니면서 점심 굶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 몇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주시곤 했다. 그 돈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노령연금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기에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막내로 자란 나에 대한 부모님의 내리사랑이라 생각하고 받았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에 감사했다.

### 무언의 대화

아버지의 기력이 점점 쇠약해지던 어느 날, 두 분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의 일이다. 좀 더 정확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대략 보름 전인 2018년 3월 31일의 일이다.

어머니께서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계신 모습을 보고, 반사적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두 분의 꼭 잡은 손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다. 저 손이 우리 5남매를 키워 주시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해 주신 두 분의 손! 부모님의 손 잡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두 분의 무언의 대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긴 세월 수고했고, 고맙습니다.  
이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저승으로 가세요!



알았어요. 그동안 고집센  
나와 사느라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 보니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 있으면 밥 세 끼는 먹게 되더라”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에게 하루 밥 세 끼 먹이는 것이 목표였고 희망이었을 정도로 가난했었다.

나도 서른 살이 지나는 딸과 이십대 끝자락에 있는 아들과 한지붕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고, 내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자식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삶의 의미를 단순화하고, 그 속에서 행복이라는 가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행복이란 편안함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했듯이, 우리 주위의 모든 현상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지 않음을 알게 되리라 조용히 생각해 본다.



## 연극 <서교수의 양심>을 보고

###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의 이해가 충돌할 때

거리에 찬바람이 스치는 초겨울, 서울 대학로에서 모처럼 연극을 보았다. ‘아는 형님’이 텔런트 정욱 씨의 데뷔 60주년 작품이라며, 초대권이 있다고 하길래 따라나섰다. 극장 입구에서 정욱 씨의 책을 팔고 있다. 연극표 값으로 대신한다 생각하고 사니 마음의 부담이 덜어졌다. 사람이 많아 무대 앞에서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허리는 아팠지만 배우들의 표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연극은 어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서사극이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딘가 우리 사회와 닮은 점이 있는 듯 보여 쉽게 폄하할 수 없음을 느낀다. 자신의 어긋난 출발을 바로잡으려는 개인의 양심이 그를 둘러싼 공동체의 이해와 침예하게 대립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줄거리는 이렇다. 신문기자 박인식은 최근 대학 은사이자 한국문인협회 회장인 서동호 교수의 비리를 알게 된다. 서 교수는 우연한 술자리에서 출판사와 소설 집필 계약을 하고 나서 후회가 막급했다. 원고료는 이미 받았지만, 글은 한 줄도 써지질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출판사는 기한을 연기하면서까지 원고를 재촉했다. 출판사의 압박에 시달리는 서 교수를 보고 아내가 그를 딱하게 여겨 다락에서 먼지가 켜켜이 쌓인 원고를 꺼내며, 미발표 원고이니 읽어 보라며 건네준다.

서 교수의 소설 『저 산 너머 저 산』은 문단의 화제가 됐고, 다시금 그의 문학성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과 달리 서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일절 거절한다.



이형걸 · 32기



연극 &lt;서교수의 양심&gt; 포스터

어느 날 대학 제자 강진욱이 찾아오자, 서 교수는 그가 원고의 저자임을 단박에 알고 용서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오히려 제자가 용서를 빈다. 자신의 아내와 정을 통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서 교수는 제자의 불손한 동기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의 원고를 훔친 자신의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절망의 나날을 보낸다.

이때 서 교수에게 묘령의 여인이 나타난다. 한때 소설가를 꿈꾸며 서 교수를 스승으로 따르던 여인 안연실. 서 교수는 그녀를 보자 잠시나마 젊음을 되찾은 듯 기운을 차린다. 그녀는 실의에 빠진 서 교수에게 여행을 가자고 속삭이며 거실 소파에서 서 교수 품에 안겨 쓰러진다.

한편, 신작 『저 산 너머 저 산』은 그동안의 서 교수 문체와 다르다며 표절 의혹이 문단을 뜨겁게 달군다. 출판사 대표와 문인협회 사무국장인 민 국장은 서 교수를 찾아와서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라고 종용한다. 특히, 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 교수 재선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민 국장은 상대 후보의 모함일 수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 교수로부터 활동비를 얻어내어 주머니를 채운다.

서 교수는 결심한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양심선언’밖에 없다고 자신을 다그친다. 제자 중 의협심이 강한 신문기자 박인식을 불러, 그에게 그간 일어났던 폭풍 같은 사건들을 낱낱이 말한다. 박 기자는 기사를 작성하여 송고한 이후, 편집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편집국장은 “이 내용이 알려지면 한국 문학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고, 독자들은 실망하여 문학을 외면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노벨문학상 후보가 제자의 원고를 절취했다는 사실도 국가 망신이니 기사는 당분간 보류하자”고 말한다.

강진욱도 대학 친구 박 기자에게 “이 보도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며, “자신은 교통사고로 죽은 걸로 해달라”고 말하고는 잠적한다.



제자 박 기자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털어놓은 서 교수는 언론에서 아무런 보도가 나오지 않자 의아해한다. 자신의 결심을 모른 척하며 침묵으로 보내는 시간이 서 교수에게는 더 불안하고 괴롭다. 마침내 서 교수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아내의 계획임을 알게 된다. 제자의 원고임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미발표 원고라고 주었던 일부터, 실의에 빠진 자신에게 젊은 여인을 가까이하게 하여 삶의 의욕을 갖도록 했던 일..., 그리고 박 기자 역시 자신이 알려 준 내용을 기사화하지 못한 일과 강진옥도 거짓 죽음을 전하고 사라진 일 등...,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알량한 명예’를 지켜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서 교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짐을 느끼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한다.

신문·방송 기자들은 서 교수 집으로 몰려오고 아내와 딸, 출판사 대표와 문인협회 민 국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다. 박 기자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기자들 앞에서 서 교수는 준비한 글을 읽어 내려간다. 기자들은 눈이 커지고 이내 웅성거리면서 질문을 이어간다.

이때 민 국장이 크게 외친다. “잠깐만요!” 모두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민 국장을 쳐다본다. 민 국장은 소리친다.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서 교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지금 밝히지만, 교수님은 현재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가시면서 망상에 사로잡혀 간혹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님!”

갑자기 민 국장의 시선을 받은 서 교수 부인은 “맞아요, 남편은 가끔 새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유롭게 날고 싶다고 말했어요. 새처럼 날아다니는 흥내를 내면서 방 안을 빙글빙글 돌고는 했어요”라고 말한다.

민 국장은 서 교수를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며 부인과 함께 서 교수의 팔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가 차에 태운다.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그 내용이 대서특필된다. ‘한국 문단 이끌던 서 교수 치매’, ‘한국문인협회 새 회장 선출’, ‘문단의 거목, 치매로



문인협회 세대교체...’. 그리고 작은 제목의 기사로 문인협회 사무국장 이 한때 정적이었던 신임 회장과 새로이 손잡고 뒷수습은 물론, 문단 변화에 나섰다라는 인터뷰 보도도 있었다.

신문을 들고 딸이 서 교수의 서재로 간다. 신문을 보던 서 교수는 손을 떨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다. 딸이 엄마를 부르고 아내와 박 기자, 강진욱, 출판사 대표, 서 교수의 연인이 달려온다.

서 교수는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올려다보더니, 신문에 구멍을 내고 머리를 집어넣어 마치 망토처럼 입고서는 “난다 난다”, “지붕이 보이네...”라고 말하며 팔을 벌리고는 새가 날아가듯이 자세를 취하면서 방 안을 서서히 돈다.

사람들은 그저 나무가 된 듯이 꼼짝하지 못하고, 서 교수는 계속 날갯짓을 하면서 그들 머리 위로 새가 숲 위를 날 듯이 날아오르려 한다.

### 파국으로 끝난 욕망의 소용돌이

연극이 끝났다. 조명이 다시 켜지고 배우들은 무대 인사를 마쳤다.

소극장 작은 무대에서 펼쳐진 권력, 사랑, 명예, 소유, 속박이 거대한 소용돌이로 뒤섞여 뇌리에 파리를 틀고 있다. 그들은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들이 원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다. ‘나의 욕망은 그들과 다를까’, ‘개인의 양심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가족이나 사회의 이득과 충돌할 때는 개인의 선한 양심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서 교수는 압박과 고통 속에서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치매인 것처럼 가장한 것일까?’

극장 안 열기와 달리, 거리의 기온은 더 내려갔다. 차가워진 바람을 막기 위해 옷깃을 여미지만, 서 교수의 초점 잃은 눈길이 덜미를 잡는다.

# 허리디스크 다스리며 100세까지

## 교통사고 후유증, 허리디스크

9년 전, 77세 때의 이야기다.

교회 노인대학 교수로 봉사하던 어느 날, 어지럼증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학생(할머니)을 붙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이후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해서 한의사를 찾아가 침도 맞아 보고,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아 봤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걷기도 힘든 상태였다.

서울 강남의 유명하다는 S정형외과를 찾아가 MRI 촬영을 한 후, 원장이 판독 결과를 설명하며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수술 날짜까지 잡고 돌아왔다.

동네 정형외과 원장을 다시 만나 서울 모 병원에서 수술 예약을 하고 왔다고 하니 원장은 “척추 수술은 함부로 해서 안 된다”며 대학 병원급 세 곳을 찾아가 두 곳 이상에서 수술을 권하면 그때 하라고 조언을 해준다.

그래서 서울 Y대 병원 정형외과 과장을 찾아가 S병원에서 찍은 MRI 필름을 보여주니 잠시 검토를 한 후 ‘걷기와 허리 굽혔다 펴기’를 해보라고 한다. 나의 동작을 관찰한 과장은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며 혹시 젊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

교통사고! 맞다. 1965년 9월 30일 17시경 동대문운동장에 있었던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응원을 마치고 오산 기지로 돌아오던 공군버스(Blue bird)가 수원 공군기지 옆 기차 건널목 레일 위로 올라서는 순간 엔진이 꺼져 움푹달짝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마침 부산행 통일호 열차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버스에 타



김국창 · 77기



고 있던 40여 명의 장병들은 극한의 공포 속에 속수무책! 유리창을 통해 달려오는 기차를 바라보며 “어- 어- 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순간, 기차는 버스 앞 엔진 부분을 치고 달려가고 버스는 붕 뜨더니 철로 옆 논바닥에 처박히고 만다. 순식간에 상상도 못 한 아비규환의 참상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2명의 장교가 죽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 발생! 뒷좌석에 탔던 나는 심한 허리통증으로 입원하여 10일 만에 퇴원했던 적이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자기도 군의관 출신이라며, 기차와 충돌 시 그 충격으로 금이 갔던 요추(腰椎)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복근(腹筋)과 배근(背筋)이 얇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니 ‘요추 디스크’가 탈출하여 허리와 엉덩이 등에 통증이 오는 것이란다.

그러나 아직 수술할 상태는 아니라며 수술해도 재발 우려가 있으니 우선 걷기운동 등으로 다스려 보고, 3~4년 후 걷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요통이 오면 그때 수술 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한다.

그러면서 주 4~5회, 한 시간 정도 땀이 날 정도로 걷기운동을 하고, 걷기운동 전후에 맨손체조 등 준비운동을 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하루에 세 번 허리를 지탱하는 복근·배근·둔근 등의 근육 강화 운동을 해보라며 원무과에 전화하여 진료비까지 면제해 주고 어서 가란다.

감사한 마음으로 의사가 가르쳐 준 요령을 지켜 걷기운동과 복근 등 근육 운동을 하며 매주 1회,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 노인병엔 운동만 한 의사가 없다

운동에 매달린 4년의 세월, 내가 81세가 되던 2015년 가을, Y대 정형외과로 그 교수를 찾아갔다. 얼굴을 기억하고 앉으라며 병세를 묻는다. 4년 전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한 결과, 비 오는 날 등 약간의 통증이 올 때도 있긴 하지만 걷거나 활동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다고 하니 “노인병엔 운동만 한 의사가 없다”며 운동과 몸 관리를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까지 해준다.

MRI를 다시 한 번 찍어 보고 싶다는 나의 요구에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과 같이 운동과 몸 관리를 열심히 한다면 100세까지 사시는데 허리가 말뚝을 부리는 일은 없을뿐더러 운동 효과가 다른 부분의 건강에도 파급돼 백세 수백歲壽를 하실 테니 그때 저와 다시 만나 ‘백세주百歲酒’를 나누자”고 농담까지 하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Active Senior)을 ‘운동’이 보장해 줄 것으로 믿는단다.

다만 연세가 높아질수록 기력이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운동 강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노쇠老衰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한다.

다시 5년이란 세월이 흘러 내 나이 이제 86세! 의사 선생님들의 ‘즉시 수술’, ‘4년 후 수술’ 등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9년의 세월! 오직 감사한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9년 전과 똑같은 강도와 방법으로 걷기와 달리기, 그리고 허리 근육 운동을 계속하며 ‘허리디스크’를 스마트하게 다스리고 있다.

다만 10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강도를 조금씩 줄여 가며 능력에 맞게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100세가 되는 해에는 그 정형외과 교수님을 만나서 감사의 ‘백세주’를 나누며 그분과 약속한 농담을 진담으로 보여줄 꿈을 가지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 앞산을 오르고 있다.







## 『매천야록』, 탄식과 절망의 기록



김동기 · 21기

### 시대착오적 군주였던 고종

『매천야록』은 1864년(고종 원년)부터 한일합방이 된 1910년까지 고종 재위 47년간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매천 황현이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황현은 1855년(철종 6년)에 태어나 1910년 나라가 일본에 병합되자 울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량의 아편을 복용하고 자결하여 망국의 원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난 열혈남아였다.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났으나 구례로 이사하여 유년기를 보냈고, 고종 22년 생원시에서 장원을 하였으나 시국이 혼란하고 관리들의 부패가 극심한 것에 절망한 나머지 관직에 나가기를 단념하고 향리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그러다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비분하여 중국 망명을 시도했지만 가난한 살림에 여비를 마련하지 못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매천야록』은 해방 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료총서 제1집으로 간행하였는데, 『고종실록』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다양하여 우리의 최근세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책을 중심으로 조선이 망해 가는 한 단면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고종이 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자질이 있는 왕이었다고 평하는데, 고종과 일본 왕 메이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고종과 메이지는 1852년생으로 동갑내기인데, 고종은 1864년에 왕으로 즉위하였고, 메이지는 3년 늦은 1867년에 즉위했다. 재위 기간도 고종이 46년, 메이지는 45년으로 비슷한데, 이루어 놓은 업적은 천양지차天壤之差로, 고종은 오백 년 사직을 잃어버린 반면, 메이지는 일본을 아시아의 최강국으로 세워 놓았다.

메이지는 즉위하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메이지 유신 주도 세력에게 권한을 전폭적으로 위임하여 이들이 추진하는 근대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메이지 헌법을 반포해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였고, 토지와 조세 제도 개정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선택하였으며, 학제를 개편하고 징병령을 실시하는 등 일대 개혁으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다.

반면, 고종은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부러워하였으나 그런 결과를 낳는 과정은 싫어하였다. 마치 고득점을 바라면서도 놀러만 다니는 수험생 격이었다. 고종 역시 목표는 일본과 같은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고종은 자신이 웅대한 지략과 불세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며 권력을 움켜쥐고 세상일에 분주하기만 했다”고 평가했다.

고종은 재위 10년(1873),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부친 대원군을 몰아내고 친정을 단행하기는 했으나 뚜렷한 세계관이나 통치철학,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혼돈을 빚어냈다. 김옥균이 주도하는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수구파인 민씨 척족과 손잡고 개혁파를 모두 제거하더니 난데없이 아관파천을 하는가 하면, 갑오개혁을 주도한 온건 개화파 김홍집·어윤중 등을 잡아들여 참살했다.

황현은 말한다. “고종이 아관파천을 한 것은 헌법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메이지는 일본을 헌정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고종은 입헌군주제든 입헌공화제든 헌정에 속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세상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고종은 무한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착오적인 전제군주를 꿈꿨다.”

임오군란은 고종 19년(1882년 6월 5일), 구식 군대의 군인들이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대우에 불만이 폭발하여 고관들을 살해하는



『매천야록』의 저자 황현



등 난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선 정부는 1881년 4월 일본식 직제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는데, 민겸호가 그 일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임진왜란 후 수도권 방어를 위하여 설치한 5군영을 2군영으로 축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수 군인들이 실직하였으며, 일본군 교관을 초빙하여 설치한 별기군과의 차별대우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장병들의 불만이 많았다.

당시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상당량의 미곡이 싼값에 일본으로 유출되어 국내에는 미곡이 부족하였고, 황구침정黃口鎭丁이니 백골징포白骨徵布니 하여 조세제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농촌 경제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더구나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재정을 낭비하는 통에 국고는 더욱 고갈 상태에 빠졌다.

군사들이 13개월간 봉급을 받지 못하여 가족과 함께 기아로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때 구식 군대에게 우선 1개월분의 녹봉미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된 녹봉미는 약속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그마저도 겨와 모래가 섞여 있거나 썩은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민겸호의 집 고지기가 쌀을 착복한 후, 남아 있는 쌀에 겨와 모래를 몰래 섞었던 것이다.

결국 고지기와 군졸들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오랫동안 천대받던 군졸들이 폭발하여 민겸호의 집으로 쳐들어가 불을 지르고, 포도청과 의금부를 습격하였다. 또한 일본공사관을 포위, 공격하고 불태우는 바람에 일본인 교관 13명이 살해되었으며, 일본 공관원 전원은 인천으로 도피하였다. 또 이들은 창덕궁으로 몰려가 난장판을 만들고, 민겸호와 경기도관찰사 김보겸을 칼로 쳐 죽였다.

이러한 소동은 청나라에서 군사 9천여 명이 급파되어 오고, 일본에서 군함 4척과 보병 1개 대대가 들어오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겨우 수습되기는 하였으나, 조선에 대한 청나라와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확대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주변 정세가 크게 혼미해

졌으며, 대내적으로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국력이 급격히 쇠퇴해지  
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란 국가의 간성이라고 여겨 왔다. 군사는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때문에 군사를 천  
시하고 홀대한 나라치고 번영한 나라는 없었다. 지정학적 여건을 고  
려할 때,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강군이 뒷받침된 국력을 기  
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겠으나, 불행히도 조선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구한 말 우리가 주권 침탈을 당한 주요인은 나라가 오랫동안  
승문천무의 정신만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 경영되었기 때  
문이다. 1882년의 임오군란은 승문천무 정책의 종착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황제의 연호는 ‘광무’였다. 이는  
“무를 빛내고 숭상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1907년 8월 1일, 조선군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조선군은 겨우 서울 주둔 시위대 4,000여 명, 지방 주둔 진위대  
4,800여 명 등, 총 8,800여 명에 불과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란 호된 수모를 겪었으면서도 어찌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고 치욕을  
반복하였는지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기록에 따르면 고종이 즉위했던 19세기 중엽까지 조선의 경제력은  
일본이나 청나라에 비해 결코 처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신만 제대로  
차렸더라면 조선이 자주적으로 근대화의 길을 열어 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선은 어  
이없게도 망했다.

1910년 8월 29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국치의 날이다. 36년간 국  
권을 상실당하면서 몰아닥친 것은 자유 박탈, 인권유린, 말과 글과 이  
름의 상실, 국혼 상실 등 너무나 부끄럽고 감내하기 힘든 치욕스러운  
일들이었다.



# 루비 반지

김익래 · 16기

그리 짙지도 열지도 얇은 빠알간색 루비 반지  
 세월이 흘러도 늘 지녀도  
 어찌 그리 애착이 깊어져만 가는지  
 어찌면 그 속에 빨간 마후라가 녹아든 건 아닐까

리얼리티 스톤 빠알간색 루베르  
 은근히 타오르는 조국애의 불꽃이런가  
 내 손가락 마디 되어 함께 잡았던 조종간  
 이제는 주름 잡힌 손가락 버팀목 되었네

세월이 어수선해도 빛을 잃지 않는 루비 반지  
 어둠을 밝혀 주는 등불이런가  
 언제나 내 중심이 되어 바른길 인도하니  
 너를 향한 연모의 마음 깊어만 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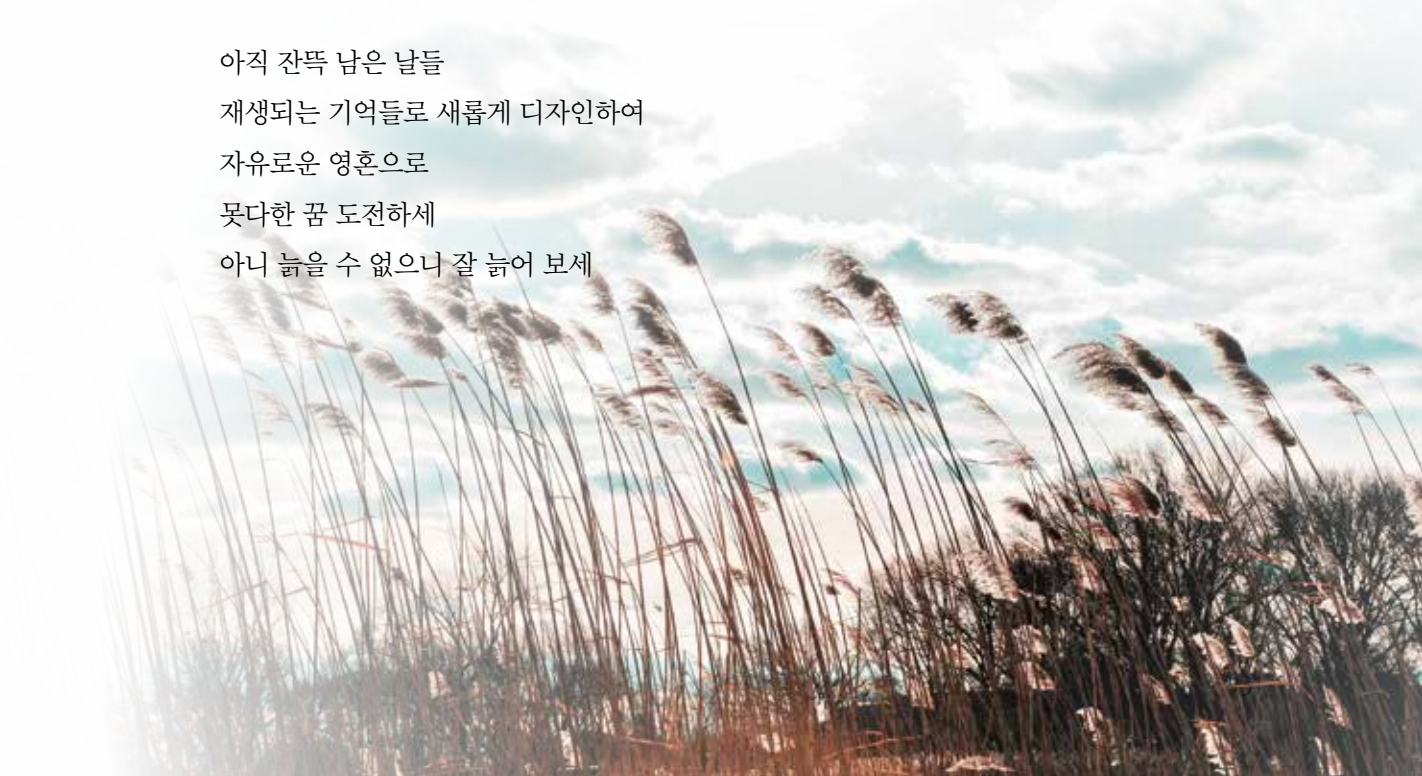


## 웰 에이징 (Well Aging)

거울을 들여다봐도 사진을 찍어 봐도  
달라진 내 겉모습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일 뿐  
흰머리 가닥가닥 심어 놓은 지혜의 숲  
주름살 한 올 한 올 스며 있는 내면의 얼굴

남의 시선 복제된 삶 이제 다 가두어 버리고  
한 셀에 갇혀 있던 땀에 찌든 유니폼  
청바지로 갈아입고  
절제와 억제의 가두리 탈출해 보세  
이제 그럴 자격 있는 나이가 되질 않았나

아직 잔뜩 남은 날들  
재생되는 기억들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자유로운 영혼으로  
못다한 꿈 도전하세  
아니 늙을 수 없으니 잘 늙어 보세





# 우리 남편은 아직도 사관생도



신서영 · 52기 박준규 소령 가족

## 공군 내 유별난 커플

올해는 저희 부부가 만난 지 이십 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아주 나이가 많은 중년 부부는 아닙니다. 저희는 열아홉에 만났으니까요. 둘 다 올해 딱 서른아홉이니, 정확히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한 셈입니다.

고등학교 때 만나 사관학교 가입교 시절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무려 7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으니, 공군 내에서도 꽤 유별나고도 특이한 커플일 것입니다.

남편은 저에 대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에 대해 논문을 썼으면 이미 박사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긴 이십 년을 함께했으니 척하면 착이고, 개똥같이 대충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남편이 겸손의 미덕을 잃지 않을까 걱정되어 이야기합니다. 삼십구 년을 내 몸뚱이로 알고 살아온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며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라고요. 말은 이렇게 해도 그렇게 오랜 기간 함께했는데도 질리지 않고, 이 남자 보면 볼수록 참 매력 넘친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저 역시 콩깍지가 단단히 씌우긴 했나 봅니다.

하여튼 그런 남자와 함께 부부라는 이름으로 산 지도 벌써 십삼 년입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도 이십 년 전이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지고는 합니다. 며칠 뒤가 저희가 만난 지 이십 주년이 되는 날이라 그런지

요즘 따라 문득문득 우리의 어리고 풋풋했던 스무 살 시절이 생각나곤 합니다.

2학년 때 참석했던 첫 성무제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깜짝 놀라게 해줄 만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미용실을 예약했습니다! 그것도 헤어와 메이크업 풀세트로!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의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스물한 살의 저는 거금 오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평소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던 제가 말이지요.

드디어 대망의 메이크업 후!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뻐서냐고요? 머리는 사자머리, 지금 당장 무대에 올라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할 것 같은 무대용 메이크업! 거울에 비친 그녀는 제가 아닌 뮤지컬 헤드워의 배우였습니다!

심지어 목과 얼굴색이 달랐습니다. 콧등에는 지나치게 밝은 색 펄새도가 일자로 곧게 색칠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코를 붙여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금을 투자한 저는 차마 메이크업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청주행 고속버스에 올라탄 저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어쩌면 내 눈에만 어색할지도 모른다! 남자친구가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저는 말도 안 되는 희망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고 드디어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인 그는 말없이 조용히 여생도 방에서 폼클렌징을 빌려다 주었습니다. 역시 제 눈에만 뮤지컬 배우였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아직도 이 일은 제 마음속에 남편에게 미안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인연은 인연이었는지 헤드워 메이크업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다행스럽게도 변치 않았고, 저는 3학년, 4학년 성무제 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배우 같았던 저를 다음 해에도 파트너로 초청해 준 것은 당사자인 제가 생각해도 사랑의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참모총장 리셉션이 생각납니다. 영광스러운 마지막 파티에 남편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주었거든요.

남편은 모든 파트너 대동 행사에 개근한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유행하던 이천 피스짜리 퍼즐을 동기생들과 한 달 넘게 맞춰 액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본인이 휴가 때 가지고 나왔어도 될 법한 그 선물을 굳이 마지막 리셉션 날 밤 저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작고 비싼 선물도 많은데 하필, 남편은 개근상이라며 버스에 오르는 제게 직경 1.5미터가 넘는 나무 액자로 만든 퍼즐을 손에 쥐여 주었습니다.

“잘 가라”며 손을 흔드는 그에게 차마 들고 갈 수 없겠다고 말을 하지 못한 저는 액자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성무제라고 차려입은 하이힐에 짧은 스커트 차림의 저는 남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려 2호선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5호선 환승 길을 지나 그 먼 여정을 오직 사랑의 힘으로 액자를 들고 이를 악물고 견고 또 걸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2학년 성무제의 뮤지컬 배우 사건에 대한 악랄하고도 치밀한 복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 남편 덕분에 공군과 함께한 20년

그렇게 저희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가입교를 건너 핸드폰 없는 4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하며 깨지는 수많은 커플 사이에서 굳건히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벌써 십삼 년차 부부이자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입교 시절을 호되게 겪었던 볼 빵빵했던 열아홉의 메추리도 벌써 비행대장 하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입교에 들어간 연락 없는 남자친구를 위해 매일매일 편지를 꼭꼭 눌러쓰던 순진한 열아홉 예비 대학생은 이제 아이 둘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들에겐 첫사랑이 아련하고 서글픈 단어라는데 운 좋은 저는 그



첫사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은 이 사람과 함께했고, 그 인생을 남편 덕분에 공군과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그 풋풋했던 열아홉 어린 연인이 마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좋은 것만 남는다던데 그 시절을 떠올리면 정말로 행복했던 기억만 차오르는 것이, 저도 이제 꽤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우리의 달콤했던 추억을 회상하며 창밖을 보니 아직 채 떨어지지 않은 단풍이 눈에 들어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거닐던 사관학교 교정도 참 아름다웠는데, 꽤 오랜 세월 찾아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가봐야겠습니다. 아직도 제 눈엔 생도 시절 그대로인 남편도 함께요.







존경하는 공사 동창회 회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해야 하는 현실 속에  
 저희 호텔은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동안 저희 호텔은 시설 환경을 호텔급으로 대폭 개선하였고 최고의 셰프들이 한식·  
 중식·양식·뷔페 메뉴를 고급화로 전면 개편하고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예식, 연회, 각종 모임을 저희 호텔에 맡겨 주시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 공군호텔 이구목 사장·임직원 일동

## “ 공군호텔이 품격높은 HOTEL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

- ▶ 시설 환경 호텔급으로 대폭 개선
- ▶ 사진/드레스/미용/한복실 증설 유명업체 입점 ⇨ 토탈서비스 제공
- ▶ 400석의 호텔 예식(한식·양식)과 전용 예식홀(뷔페) 운영 ⇨ 고객 선택폭 확대
- ▶ 예식 하객을 위한 객실 제공 및 7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뒤풀이 모임 가능
- ▶ 한정식/중식/양식/뷔페 메뉴 다양화 ⇨ 시중 호텔 대비 30~50% 가격 운영
- ▶ 상설 중식당 운영으로 누구나 쉽게 예약 없이 이용



웨딩 / 단체행사 / 동창회 / 송년회 / 중·소 연회 **예약문의 02-844-0336**

[www.airforcehotel.co.kr](http://www.airforcehotel.co.kr)

100만원 상당의 종합 건강검진을 25만원에 가능한

“혜택 만점 건강검진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군인공제회  
회원 가족들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는!!

꼼꼼함은 UP! 가격부담은 DOWN!

### 서비스 대상

- ▶ 군인공제회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분
  - 하사 이상 현역 · 예비역 군간부
  - 전·현직 군무원 /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공무원
  - 전·현직 KIDA직원, 국방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직계존비속

### 건강검진서비스 비용

정밀선택검사 2개 기본 포함 25만원 정액  
\* 정밀선택검사 2개 초과시 별도 비용 발생

### 건강검진 신청방법

- 01 건강검진 신청사이트 접속  
(<http://health.mmaacnc.or.kr>)
- 02 건강검진 제휴업체 중 선택하여 회원가입  
(메디링크, 예스헬스케어)
- 03 원하는 지역의 검진기관, 검진항목, 날짜 선택  
(정밀선택검사 2개 기본 선택)
- 04 검진기관 예약확인  
(검사용품 및 문진표 발송 등을 위한 확인)
- 05 검진 당일 신청기관 방문 후 건강검진 실시
- 06 검진 완료 후 해당 검진기관에 비용지불  
\* 정밀선택검사 2개 포함 25만원 정액
- 07 검진결과 발송(등기우편, 이메일 등)

### 건강검진 항목 안내

- ▶ 기초검사  
문진 / 기초검사(혈압, 신체계측) / 시력 / 청력 / 안과  
대·소변검사 / 혈액검사(CBC검사) / 철 결핍성 빈혈  
심혈관검사 / 간기능검사 / 신장검사 / 당뇨검사 / 체장검사  
전해질검사 / 간염검사 / 통풍&류마티스검사 / 감염검사  
심·폐기능 / 갑상선검사 / 중양표지자검사 / 비타민 D검사
- ▶ 기본정밀검사  
소화기검사 : 위내시경(일반 or 수면)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상복부, 하복부, 유방)  
부인과검사(유방X-ray, 자궁암) / 체성분검사  
골밀도검사 / 동맥경화검사 / 스트레스검사
- ▶ 정밀선택검사 2개 선택(기본)

검진항목	비고
MRI-T2(뇌 or 요추 or 경추) / MRA / 대장내시경	택 1
CT(뇌 or 요추 or 경추 or 심장 or 폐) / 심장초음파 / NK세포검사 / 유전자검사 / 심근경색위험인자 / 남성호르몬 / 여성호르몬	택 1

#### 문의전화

- ▶ 예스헬스케어 : 070-5066-3558
- ▶ 메디링크 : 070-5227-3770

군인공제회C&C는 회원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원과 검진기관과의 비용지불을 비롯한 검진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정 기고





대한민국 공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가장 높은 힘! \_ 안규백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보라매들의 산실 \_ 임우근  
청주의 하늘로 우주로 \_ 이범욱



# 대한민국 공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가장 높은 힘!



안규백

●  
국회의원  
(전 국방위원장)

어느 새 흐른 시간은 초록빛 무성하던 한여름 한반도의 기억을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긴 채 우리를 겨울 한가운데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의 새로운 시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도 어김없이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계四季 역시 한반도를 찾아 이 땅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꾸밀 것입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의 흐름 위에 반복되는 계절의 순환은 변주곡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노래하고 번영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토록 찬란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위대한 국민의 끝없는 의지와 도전이 추동推動한 것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계를 물샐 틈 없이 지켜낸 대한민국 국군의 굳건한 대비 태세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은 한반도의 영공을 자유롭게 누비며 하늘 높이 대한민국의 기치를 치켜들었습니다.

오늘날 공군은 우리 국군 전력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F-35A나 글로벌호크 등 공군이 도입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 체계는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추적해 낸 그린파인 레이더나 MCRC 등은 무력 시위의 효과를 반감시킴으로써 일탈 행위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을 꺾는 한편, 우리 군의 굳건한 대비 태세를 확인하며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있기에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1949년 제1기 사관생도 97명을 시작으로 70여 년을 거치며 배출한 1만여 명의 정예 장교는 전후의 폐허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출발한 대한민국 공군을 오늘날 세계적인 강군으로 키워 낸 핵심이었습니다. 조국 하늘을 수호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공군 장교들의 위국헌신(爲國獻身)이 있었기에 우리 영공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개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서 조국 하늘을 수호하는 데 공헌하신 공군사관학교 동문 여러분께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가 앞으로도 세계 최정예 장교를 배출함으로써 언제까지나 대한민국의 영공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동문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 국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앞에 첨단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중·일·러 등 세계적 강국에 둘러싸인 한편, 휴전선을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야말로 첨단 전력을 바탕으로 한 공군력 발전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예 공군 장교를 배출하는 공군사관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가는 이유입니다. 첨단 전력을 차질없이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운용에서도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늘을 넘어 우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공군의 도전과 의지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공군력 성장의 한가운데에서 눈부신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온 공군사관학교 동문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공군사관학교의 발전과 동문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보라매들의 산실



임우근  
●  
한성기업 회장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YOLO(You Only Live Once, 소확행小確幸, 워라밸Work Life Balance이라는 단어의 유행에서 느껴지듯 자기 자신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는 풍조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상무 정신에 바탕을 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명예로운 헌신의 삶을 가르치는 공군사관학교의 정신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사십훈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지덕체의 덕목을 갖춘 일꾼들이 씬 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길러지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선 선배들이 본을 보이며 지난 70년을 부단히 노력하고 이끌어 왔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공군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미래의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항공우주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성기업도 ‘산업구국’, ‘공명정대’, ‘화목단결’, ‘력투향상’, ‘감사보은’이라는 사훈 아래 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을 통해 좋은 제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관생도들은 성무대에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여 ‘국가에의 헌신’이라는 불변의 고귀한 가치와, 동시에 하늘을 넘어 우주의 시대를 열고 있는 변화에 발맞추는 귀한 일꾼으로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해동청 보라매가 푸른 하늘을 가르고 높이 날아오르듯 공군사관학교의 거침없는 비상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주의 하늘로, 우주로



이범욱

●  
공군사관학교 발전후원회  
명예회장

20세기 실존철학의 대부인 독일의 마르틴 하이데거는 철학자에 농부이면서 선수 못지않은 스키어이기도 했다.

종전까지 철학의 세계에서 인간의 존재는 통속적인 ‘존재자’만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무겁고도 신중했던 그의 통찰력이 존재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현 존재’를 이끌어냈다. 한때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에 총장까지 올랐지만 나치 정권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파직당하며 나이 50에 라인강변에서 참호를 쌓는 강제노역에까지 동원되었다.

하이데거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잉태되고 선취先取된 존재다, 시간이라는 지평에서 찰나를 살다 가는 ‘인간은 시간’이라는 주장을 한 철인이다.

2019년은 공군 창군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공군사관학교가 1985년 직지의 본향인 청주에 자리를 잡으며 ‘발전후원회’가 발족한 지 20년이 되었다. 생의 갈림길에서 지역 연고에 창립회원인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현 존재다.

1968년은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루호 납치 사건으로 남북 대립이 최고조로 긴박했던 시기다. 그해 3월부터 대전의 공군기술교육단에서 나는 까다로운 교육 훈련을 마치고 학사 57기 정보장교로 임관했다. C-46 수송기에 몸을 싣고 대구~오산 간 연락장교로 하늘 길을 오갔다. 속리산 상공을 통과하며 악천후로 롤링 피칭에 기압 현상으로 기체가 급강하하면서 사선을 넘나든 적도 있다. 공군의 최전방인 백령도까지 파견되어 군화 발자국을 남기며, 1971년 8월에는 실미도 사건으로 참모총장까지 전역하는 사태를 지켜보았다.

국적 항공사에 입사해 21년간 국내외 순환 근무로 시야를 넓히며 인생의 황금기를 하늘과 항공 분야에 투신한 지난날이다. 고향에 돌아오니 그리던 고향은 아니었지만 공군사관학교와 동행하며 나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지난 시간의 역사 속에 후원회는 공군사관학교를 주축으로 매년 일선의 강릉·원주·충주·예천·서산·대구·사천 비행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하고 있다. 2016년에는 민간 후원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군을 빛낸 인물 협력 부문’ 공군참모총장상을 수상했고, 순직 조종사들을 위한 ‘하늘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도 전달했다.

사관학교 생도들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주종을 이루지만 교류 차원에서 외국인 생도들도 유학을 하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외출을 나가면 한국인 생도들은 자기 부모나 집을 찾지만 유학생들은 갈 곳이 만만치 않다. 이에 후원회에서는 이들의 보호자 및 후견인 역할도 하고 있다. 이들은 졸업 후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 장래의 한국을 위해 일할 잠재적인 인적자원들이다.

충청북도는 바다도 없고 도세도 약한 도道 중 하나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청주와 충주에 공군 공항이 두 개 있고, 청주에는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사학의 전당인 공군사관학교가 웅비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민간 공항으로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중부권의 하늘길 관문 역할을 겸하고 있다. 바다도 없이 세계를 향하며 ‘하늘로 우주로’ 사통팔달의 중심에서 명품 항공 지역이 되고 있다.

청주는 예로부터 양반과 교육의 도시로 평평이 나 있지만 조국 수호의 또 다른 진면목이 있는 고장이다. 한국군 군번 1번의 육군대장 ‘이형근’ 장군이 이 고향 출신이다. 공주 출신이지만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대 합참의장과 제9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선배들을 이유로 1번을 사양했지만, 미군정 시절로 맥아더 사령관이 결정한 일이라는 전언을 듣고서야 수용했다고 한다. 군인으로서 정치를 멀리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토 방위의 외길 일생을 걸어온 진정한 군인이었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무심천을 사이로 한쪽에는 본교 건물이 있고, 건너편에는 훈련장이 있다. 어린 시절 신송리는 6·25 한국전 당시 피난처이며 안전하다고 대피한 현장이 오히려 아군과 인민군의 격전지가 되었다.

가중리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역임한 유병현 대장의 출생지이다. 5·16군사정권 시절 농림부장관을 역임했으나, 민정 이양 이후 군에 복귀하여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걸었다. 6·25 한국전 참전, 제2대 맹호부대장으로 월남전 참가, 철원의 휴전선 제2땅굴 발견, 한미연합사 창설의 주역이기도 하다. 주변의 끈질긴 회유와 권유에도 정치에 오염되지 않고 오로지 군인의 길을 걸은 참군인이다.

공군사관학교에도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양성평등 시대에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 여성 사관생도의 꿈은 가장 좁은 문이 되었고, 여성 파일럿들도 영공 수호에 나서고 있다.

국가권력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영역으로 영토·영해·영공이 있다. 영토나 영해는 국제법상 그 범위가 있다. 영공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무한대로 ‘하늘로 우주로’ 솟구칠 수 있는 공군 유일의 사명이자 과제이다. 현대전에서는 제공권 장악이 전쟁 승리를 위한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다.

가을날 해시계가 기우는 거리를 거닌다. 노랗게 물들어 가는 은행잎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것도 잠시 잠깐의 무아지경이다. 열매가 떨어져 뒹굴며 냄새를 피우니 이구동성으로 합성을 지르며 손으로 코를 가로막는다.

밤은 밤송이 가시로 덮고, 은행은 악취를 풍기며 동물의 접근을 막는 ‘종의 기원’에 자연의 섭리다. 은행 알은 영양만점에 보약으로서, 아는 사람들은 냄새 불문 앞드려 끌어모은다. 순간을 버티며 참지 못하



고 아우성인 우리의 주변이다. 하이데거의 사유처럼 인간의 말이나 글이 ‘존재의 집’이 되어 자연으로 회귀하고 있다. 숲 속의 오솔길을 거니는 설렘에 오늘도 빛을 뿜어내며 나는 희망의 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발전후원회 회원들은 은근한 소망이 있다. 공사 심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성장한 사관생도들이, 수많은 동문 선배들이 그리했듯이, 장차 나라의 간성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 줄 것으로 믿는다.

#### 공군사관학교 발전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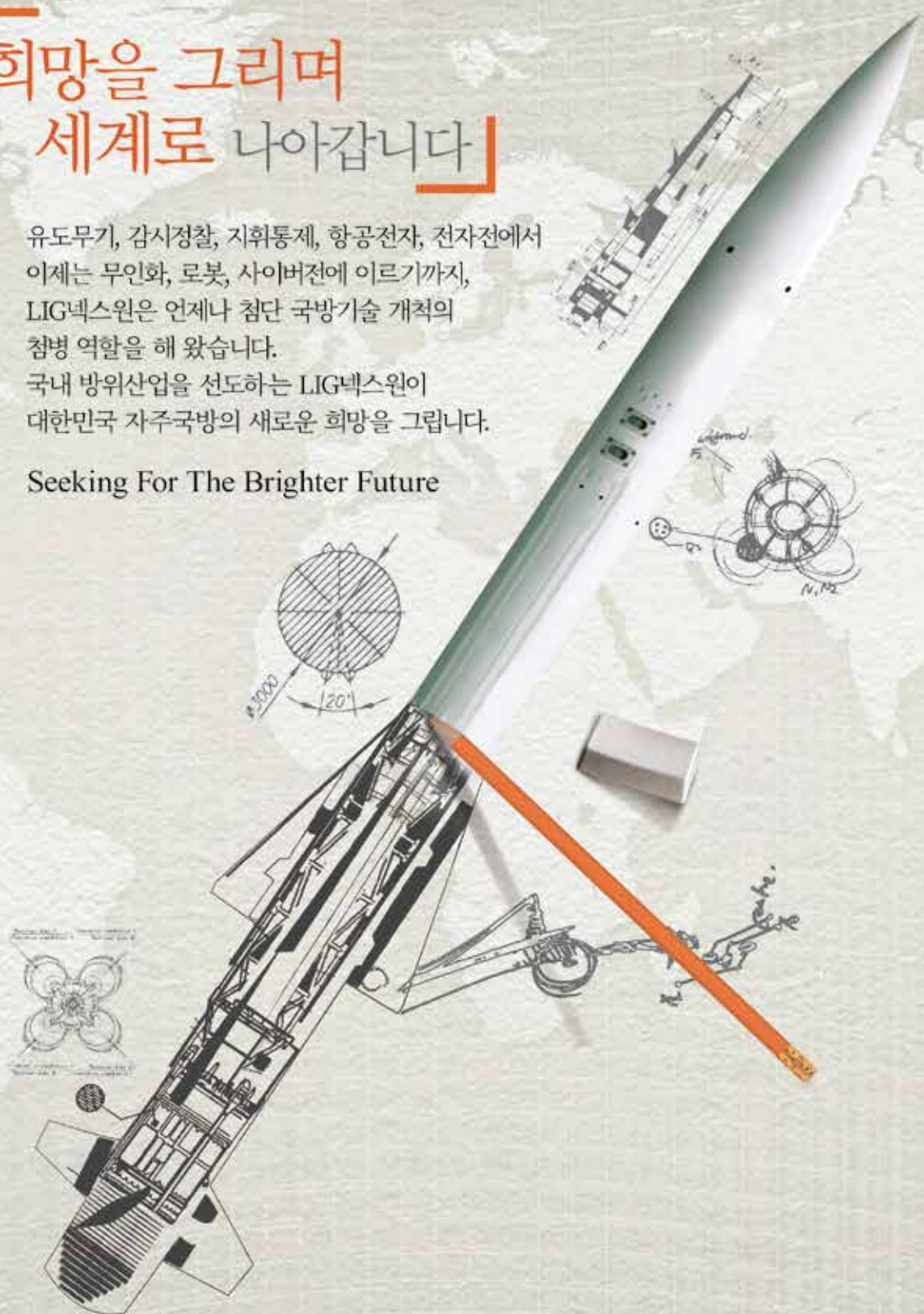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집 등 각종 지원을 위해 뜻있는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1999년 4월에 결성되었다. 모집한 기부금은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에 인계하고 있다. 공사 총동창회장이 당연직으로 후원회장을 겸임하며, 지역 회원 중에서 명예회장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총 기부금은 약 19억 원으로, 기부금의 대부분은 교육진흥재단에 출연하였으며, 일부는 생도 및 장병 격려, 하늘사랑장학재단 등에 출연하였다. 현재 발전후원회 회원은 고문 6명을 비롯해 총 39명이다.

# 희망을 그리며 세계로 나아갑니다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 항공전자, 전자전에서  
이제는 무인화, 로봇, 사이버전에 이르기까지,  
LIG넥스원은 언제나 첨단 국방기술 개척의  
참병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LIG넥스원이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새로운 희망을 그립니다.

Seeking For The Brighter Future





# 쾌적한 자연환경, 수준 높은 병원!

현재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중풍, 치매, 침상, 압 등 만성질환이나 재활이 필요한 질환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 및 요양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이에 알맞은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소들병원은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서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특화된 재활 및 요양, 투석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앞서가는 병원, 선진화된 복합구성체 병원, 환자의 쾌유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랑이 넘치는 병원입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사랑을 실천하는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영복 이사장



선진화된 의료복지복합병원  
의료  
법인 **미소들 노인전문병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 나길 88-41  
대표번호 02-3666-1114  
홈페이지 [www.misodle.co.kr](http://www.misodle.co.kr)

# 동문 동정

공군 발전의 견인차, 공군사관학교



1

## 기 홍우회



이배선 동문이 『출격일지』를 출간했다. 저자는 6·25전쟁 중이던 1952년 12월 처녀 출격에서부터 1953년 휴전이 되기까지 92회에 걸친 출격 비화를 일지에 기록했다. 현재 『출격일지』 원본은 전쟁기념관과 미 공군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7

## 기 칠성회

칠성회는 2019년 연말 등산 후 총회를 개최했다.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관심 사항에 대한 대답을 통해 우의를 다지며 2020년의 건강과 축복을 기원했다.



2

## 기 이공회



서예가 이공 동문의 개인전이 2019년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라이나생명 시그나타워 2층 갤러리에서 열렸다.

10

## 기 십철회

- '십철회 산우회' 12명이 매주 3회 산행 활동을 하며, 2013년부터 모금하여 공군 하늘사랑장학재단에 기부한 금액이 2020년 새해를 맞아 누적 1,200만 원을 달성하였다.
- 장풍길 동문의 손녀가 해사 77기로 입교(차남은 육사 46기로 현재 육군 대령)하여 자랑스러운 3대가 대한민국 삼군 사관학교와 인연을 맺는, 보기 드문 훌륭한 가정이 되었다.



## 15기 성익회



최성열 동문이 수필집 『하늘에서는 땅을, 땅에서는 하늘을』을 출간했다. 저자는 추체험(追體驗)을 통해 얻은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여 조종사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현실에서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하늘의 아름다움에 함께 공감하길 바라며, 나아가 지평을 넓혀 주고자 했다.

## 19기 태성회



박창용 동문이 장편소설 『사랑의 빛』을 출간했다.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고자 했으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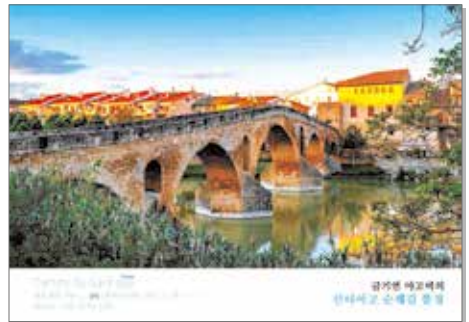
## 20기 청익회

- 김성일 동문이 2020년 4월 14일 개최된 공군 전우회 정기총회에서 제27대 공군전우회 및 제8대 공군발전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 이기동 동문이 2019년 12월 19일 개최된 대한민국 성우회 정기총회에서 공군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21기 여명회

금기연 동문이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명동성당 지하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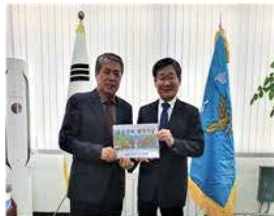
## 22기 쌍매회

김은기 동문이 2020년 1월 31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 26기 아람회

2020년 1월 14일 아람회 임원 및 26차 공사 총동창회 회장단은 총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기증하고, 홈페이지 신규 구축비용으로 200만 원을 후원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22일에는 순조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격려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 27기 석로회



- 박경중 동문이 저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역량』을 출간했다. 저자는 이 저서를 통해 기술친화적인 마인드를 갖고 창의융합적 역량 배양을 위해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 시니어 여행 전문가 한경표 동문이 저서 『트래블 그레이』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저서를 통해 여행은 나이가 아닌 용기의 문제로, 작은 용기만 낼 수 있다면 경이로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였다.



# 29

## 기 회조회



박재복 동문이 2019년 9월 6일 한국군사문제 연구원장에 취임했다.

# 30

## 기 창로회

이용곤 동문이 2019년 10월 8일 한라일보 대표 이사로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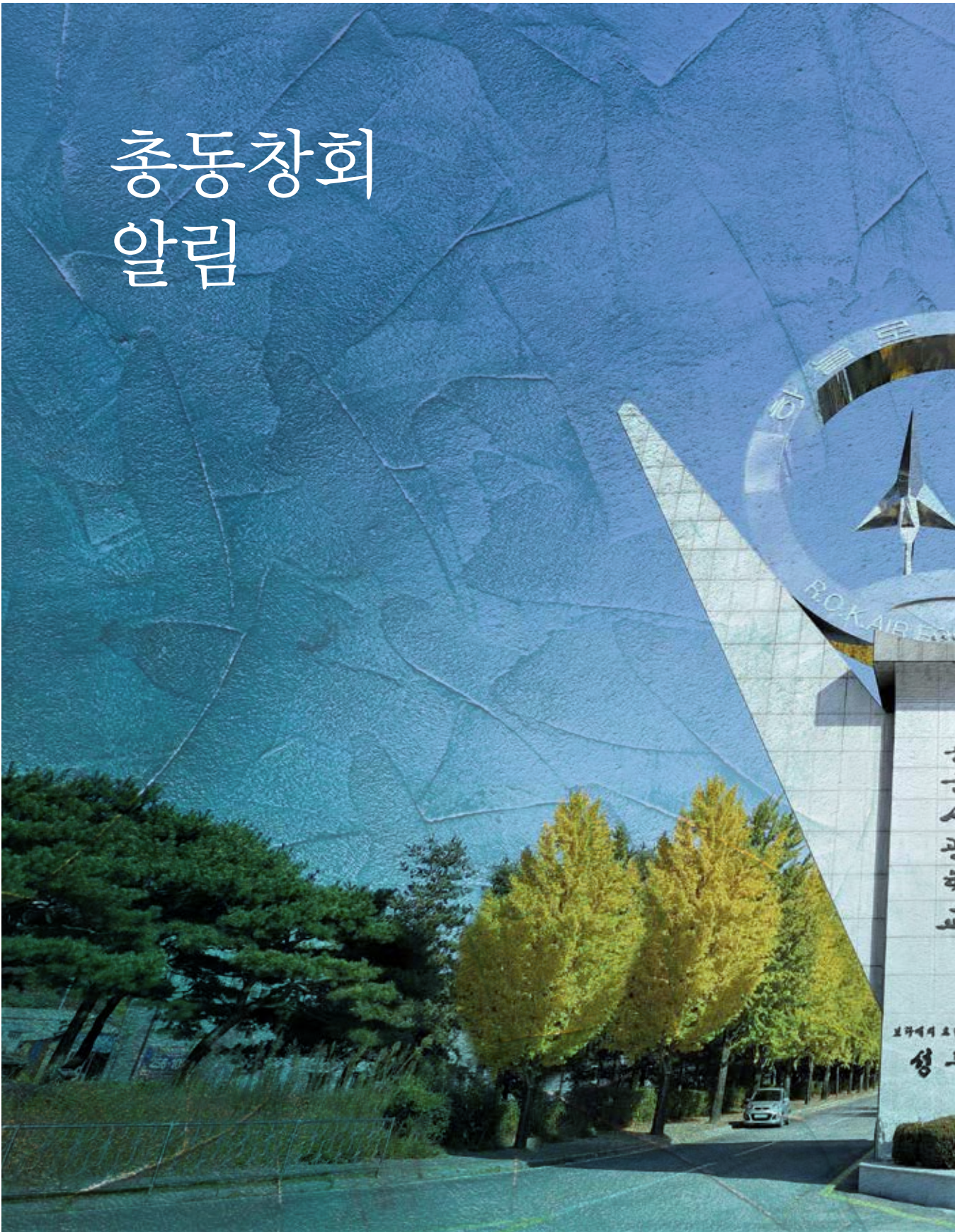
# 31

## 기 한돌회

고 김해성 중령 안장식이 2019년 10월 3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었다. 고 김 중령은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물에 잠긴 전투기의 복구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중된 책임에 의한 중압감으로 그해 11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는 민간 묘지에 안장되었으나,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유가족과 동기생들의 노력으로 17년 만에 순직 처리되어 현충원에 안장하게 되었다.



# 총동창회 알림







정기총회

희비 납부 안내

평생희비 납부 현황



# 정기총회

## ◎ 제27차년도 운영 결과 보고

### 27차년도 운영 중점

「동문 상호간 단합 도모」

- 모교 발전 지원 및 자긍심 고취
- 회원 간 친목 및 단합 강화
- 사업의 내실화 도모

### 회원 현황

- 임관 총인원 : 10,340명
- 현재 인원 : 9,482명
- 예비역 인원 : 5,398명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분	금액	비고
기금 인수	1,127,537,089	26차년도
27차년도 적립	60,051,986	평생회비 : 23,600,000 이자수입 : 16,541,986 후 원 금 : 20,000,000
적립 총액	1,187,589,075	

### 주요 추진 사업

#### 1. 모교 발전 지원 및 자긍심 고취

- 가. 개교 70주년 기념 생도전대본부 리모델링 기증
- 나. 68기 졸업 축하 및 격려 간담회 : 최용덕상 수여

#### 2. 회원 간 친목 및 단합 강화

- 가. 테니스 대회(11.16) : 공군사관학교 테니스장, 공사 교장 후원
- 나. 테니스 동아리 모임 : 월 1회, 향안단 테니스장

- 다. 바둑대회(11.21) : 공군회관
- 라. 지역별 친선 골프 행사
  - 전라권(10.8), 경상권(10.16), 강원권(10.23), 충청권(10.30)
  - ※ 경기권·서울권 골프 행사 및 등산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

3. 이사회, 자문위원, 예비역 및 현역 임원 간담회
4. 순조회 초청 행사(12.4) : 공군전우회 공동주관 오찬 및 전 회원 선물 증정
5. 홈페이지 신규 구축 : 26·27기 공동 후원
6. 회원 복지 증진 : 미소들 노인전문병원과 복지 제휴 협약 체결
7. 성무장학사업 기반 조성 및 추진

## ◎ 찬조금 및 후원 현황

### 찬조금 내역

(단위 : 만 원)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최동환(27기)	1,000	임판식(27기)	800
공군참모총장	600	26기 동기회	300
이희근(1기)	100	권오성(27기)	100
신해철(27기)	50	20·21기 자문위원	40
전대우(12기)	30	최홍선(5기)	10
정지수(11기)	10		

### 후원 내역

공군사관학교장	테니스대회 기념품 및 음료 지원
대구 27기 동기회	경상권 골프간담회 만찬비
정표수(27기)	전라권 골프간담회 만찬비
홍성룡(27기)	신규 임원단 간담회 만찬비

### 공사총동창회 발전기금 기부

- 26기 동기회 : 2,000만 원

# 회비 납부 안내

##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국민은행 485501-01-34342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 평생회비란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적립기금으로서,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 분담하는 회비이며 1인당 20만 원입니다.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기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를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 경비는 기별 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 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 기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 기수가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후배들을 위해 선배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 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 ◎ 기별 분담금 납부 안내

###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국민은행 496501-01-199518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동창회 운영 경비의 일부를 일정액 분담하여 지원하는 당연직 이사기수 연회비로, 운영 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20~27기)는 40만 원씩, 운영 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29~48기)는 60만 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28차년도 운영 기수는 28기로, 이사 기수는 20~48기입니다. 본회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 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총동창회 운영이 시작되는 매년 7월 안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비 완납 기수 : 1~35기, 57기, 59기, 61기, 63기, 65기

## ◎ 27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019.6.1~2020.5.31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 명단					
35	246	246	0	강대구, 강명석, 고재천, 고정우, 공명권, 곽종원, 곽호석, 권경훈, 권용호, 김광희, 김귀병, 김규태, 김기동, 김기완, 김기용, 김남규, 김동호, 김명수, 김봉림, 김성갑, 김양욱, 김영욱, 김유재, 김장우, 김장표, 김정현, 김종언, 김 철, 김현식, 김현호, 김형현, 김호인, 노명화, 류완규, 류춘길, 류치성, 문재명, 문정석, 문종선, 박갑수, 박재규, 박재현, 박정우, 박정욱, 박정호, 박준기, 박찬규, 백용주, 변호철, 서관석, 서광석, 서상원, 서창수, 송운섭, 송재근, 송중호, 안석현, 오세훈, 우문택, 윤광순, 윤인석, 이강진, 이계상, 이기호, 이기훈, 이병욱, 이병주, 이상덕, 이상명, 이성진, 이승일, 이연희, 이용구, 이용식, 이원정, 이일형, 이재욱, 이재호, 이종찬, 이종후, 이진승, 이철호, 이충환, 이치호, 이태원, 이희장, 임상길, 임종수, 임중운, 장동웅, 전광준, 전승준, 정준섭, 정지영, 정철중, 조영준, 최선창, 최승일, 최용만, 최원석, 최종태, 최태석, 최택균, 하진룡, 한준식, 함동배, 함윤석, 홍덕표, 홍선기					
36	256	33	223	김창겸	37	255	87	169	
38	231	77	154	이정희	39	220	17	203	김형래
40	241	23	218	박대준	41	238	17	222	김준호, 우종성, 임경민, 홍승배
42	275	29	246		43	271	27	244	김 호
44	221	11	210		45	220	21	199	
46	220	4	216		47	201	5	116	
48	192	105	87		49	200	3	197	
50	193	4	189		51	203	2	201	
52	202	2	202		53	211	3	208	
54	192	0	192		55	186	2	184	
56	155	1	154		58	134	0	134	
60	148	1	147		62	145	0	145	
64	160	50	110		66	137	0	137	
67	148	0	148		68	158	0	158	
<b>합</b>	<b>현재 인원 : 9,531</b>			<b>납부 인원 : 3,834</b>			<b>미납 인원 : 5,697</b>		

※ 입금명 '공사총동창회비'(2012.7.27)로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기수와 성명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교 70주년에 부쳐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殺身報國으로 하늘을 지키며  
나라 위한 세월 어언 칠십 년

꽃처럼 산화한 先代의 염원이  
우리 정신에 면면히 흘러  
다시 後代에 간절하게 이어지니

아 영원하여라 성무대, 성무인이여  
통일 한국을 초계비행 할  
결기에 찬 네 눈빛이 아름답고 찬란하다.  
나라의 희망이다.

— 27기 임종춘, 시인



## 편집후기

기고문 부족으로 편집에 애로가 있었다는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조바심에 기고문 접수 일정을 당겨서 진행하였는데, 다행히 동문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성무』지 편집을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평생을 국가에 헌신하고 군문을 떠나신 지 오래되셨지만 아직도 열정과 용기, 국가와 주변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심을 기고문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고에 감사드립니다.

편집 기획 단계부터 과거 『성무』지의 흐름과 분위기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도 다수 동문이 공감할 수 있는 동문회지가 되도록 해보자는 생각으로 진행했습니다만, 뒤 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일부 기고문은 다소 양이 많아 축소 편집도 고려했지만 내용이 좋기도 하고 기고문의 의미와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게재 하였습니다.

편집을 진행하면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세부 내용 검토에 이르기까지 동창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편집위원들 간에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과 조율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서 잘 정리해 준 총동창회 사무실 설민진 실장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성무』지 편집과 제작에 정성을 다해 준 나무와숲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고 안내

공사 총동창회 회지인 『성무』지는 연 1회(매년 7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체험기, 과거의 에피소드 및 취미활동, 기타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유익한 내용의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50호 『성무』지 원고는 2021년 3월 20일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0.7.1

발행인 이영만

편집인 이희명(김영근·백병현·임종춘)

발행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우)0694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전화 02-823-1091

팩스 02-823-1092

이메일 04airfa@hanmail.net

홈페이지 kafaaa.or.kr

편집·제작 나무와숲(02-3474-1114)

# 고객의 물류를 책임지는 가장 신뢰받는 종합물류기업

국내 전지역 물류 Network를 보유  
one stop 화물관리 services



- 항공/해상 수출입 화물운송 서비스  
Export and import cargo trucking services

- 창고 보관 서비스  
Warehouse services

- 수출 포장 서비스  
Export packing services

-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Container Loading and Unloading

- 환적화물 서비스  
Trans Shipment Services



CEO 한동석

- 공군사관학교 졸업(31기)
- 현 (주)백마종합물류 대표이사



BML  
Baeg Ma Logistics

## 백마종합물류(주)

# 통신 혜택과 카드 혜택의 만남!



## KB국민 Liiv M카드

LiivM 통신요금 자동이체하면  
최대 1만 5천원 청구할인



### LiivM 통신료 자동이체 할인 서비스

전월 이용 실적	1구간 (50만원 이상)	2구간 (100만원 이상)
할인 금액	10,000원	15,000원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율 +3%, 최고 연 24% \*연체발생 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함. 일시불 거래 연체시: 거래 발생시점의 최소기간 (2개월), 유이자할부 수수료를 적용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시: 거래 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 수수료를 적용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 국내, 해외금융 2만원 \*전월 실적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할인 및 개별 서비스 한도가 적용됩니다. \*카드 신청 시 전월 이용실적, 할인한도 등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상품설명서,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0-C2b-02111호 (2020.03.13~2021.03.12)



# ‘보라매의 요람’ 공군사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미국 현지에 설립한 한인 비행학교가 문을 연 지 올해로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비행학교의 설립을 주도한 노백린 장군은 “앞으로 공군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조종사 양성과 공군 전력 증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1949년 개교한 공군사관학교는 1만여 명의 정예 공군 장교를 육성하고 배출한 ‘보라매의 요람’으로, 세계 최강 대열의 공군력 건설을 이끌어 왔습니다. 강한 공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 공군사관학교의 기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은 KF-16, F-15K, F-35 등 최신에 전투기는 물론 훈련기, 공중급유기, 공중항공통제기 등 입체적이고 상대를 압도하는 공중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공군력에 안도감과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공군은 전력 증강과 더불어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도 선도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한국형전투기사업(KFP)의 기술 도입 생산은 항공기 생산의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T-50 고등훈련기 사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개발 시 공군은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개발 현안과 리스크를 최소화함은 물론, 모든 개발 과정에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군 지휘부의 과감한 결단은 KAI를 비롯한 250여 개 국내 항공업체가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TA-50 전술입문기, FA-50 전투기 등 국산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계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에서도 공군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KAI의 구성원은 항공산업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각오로 국산 항공기의 개발과 양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공군사관학교의 개교 기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공군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한국항공대표이사 안 현 호



# 항공우주를 향한 꿈과 도전

미래를 깨우는 담대한 힘!  
대한민국의 위대한 내일!  
KAI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KAI**

# A330 MRTT 공중급유기 최선의 솔루션.



**FLY**  
**WE MAKE IT**

A330 MRTT(다목적급유수송기)는 타사 공중급유기 대비 더 많은 연료, 인원 및 화물수송이 가능합니다. 최소의 비행시간을 활용하여 작전 요구사항 충족이 가능합니다.

자동 급유체계, 확장된 연결체계 등의 최신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능력을 지속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A330 MRTT를 이미 신뢰하고 있는 기존 운전자들과 함께 최고의 공중급유기로 선택받은 MRTT 운용경험을 함께하십시오.

Benchmark. We make it fly.